SW 신원이엔지
대표 김 종 인
냉·난방 보온전문
냉·난방 공조덕트
파이프케이싱
크린룸 덕트
벤츄레타·주방후드
각 종 F A N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大田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483호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의회 파국으로 치닫나?

예산결산위원장 선출 과정 자율권 무시 등 5가지 문제점 지적

이정수 의장 "강력 법적대응"… 내년 본예산 처리 불투명

대전 중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19일 이정수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의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장 이 의장은 의장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의회가 파국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대전 중구 본예산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2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본예산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육상래 부의장이 의사 진행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면서부터 계획된 일정은 중단됐다.

육 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의장이)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한다"며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결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자율권을 무시했고, 본회의 중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속개한 것 등을 이유를 들었다.

또 5분 자유 발언시 발언 시간이 초과됐음에도 제재하지 않는 등 등 회의 진행 과정에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점 등도 의장 불신임 사유라는게 육 부의장 등을 비롯한 가결에 나선 8명 의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김연수 의원이 박용갑 구청장 측근 부부의 인사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 활동을 문제삼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당 부당지급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중구의회가 아닌 대전시의회에서 열면서 일부 중구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평소 이 의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쌓인 점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정수 의장은 "(제가) 허락도 안했는데 일부 의원이 의사봉을 가져갔고 불신임안 내용도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장 불신임안은) 원천 무효"라며 "강력하게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충청남도내 40개 청소년 관계기관 업무협약 20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도내 40개 청소년 관계기관과 청소년 행복캠페인' 고마워Yo(고마워요)' 3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마워Yo'는 청소년 스스로 감사나눔 실천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성을 함양하도록 유도하는 자기주도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초·중·고 독감 환자 역대 최고

보건당국 '비상'… 학교 내 감염예방 · 확산 방지 조기방학도 검토

보건 당국이 초중고 인플루엔자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자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학교 조기 방학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루엔자 예방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49주(11.27.~12.3) 13.3명(/외래환자 1,000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한 후, 50주 34.8명, 51주(12.11.~17.) 61.4명(잠정치)으로 증가했다.

특히, 초 · 중 · 고 학생 연령(7~18세)에서 49주 40.5명, 50주 107.7명, 51주 152.2명(잠정치)으로 급증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유행 확산 차단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보건교육 강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등교 중지 등 학교 내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필요 시 조기방학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학생들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유행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18세 소아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적기 치료 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신속히 방문해 진료를 받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임신부, 만성질환자, 의료인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을 받고, 학생의 경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 야생 조류 및 가금류에서 확산 중인 AI에 대하여, AI 위기경보 심각단계(농림축산식품부, 12.14) 발령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1일 구성한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중심으로 전국 42개 AI 살처분 현장에 중앙역학조사관이 출동하여 지자체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 · 점검하고, 항바이러스제(1만5300갑),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2만60개) 등 비축물자를 지원했다.

의심환자 발생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병원 국가지정병상의 음압시설과 비상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필요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동준비를 철저히 하고,일선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AI 발생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의심환자 등 위치 추적 필요 시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총 9183명(누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보건소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 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총 고위험군 9,183명(누적) 중 3775명은 10일간 모니터링이 완료되어 남은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5,428명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기 증상 등 신고자가 총 26명이었으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현재 유행 중인 계절 인플루엔자 A(H3N2)로 확인된 1명 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국내에서 확보한 H5N6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을 통한 인체감염 위해도 평가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 인체감염 예방 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충남도 '빚' 연내 1000억 밑으로 '뚝'

연말까지 943억으로 낮추고 · 내년 277억 추가 상환해 666억으로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연내 10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 2010년부터 올 연말까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마련한 재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활용, 총 3000억 원의 빚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의 행정자치부 기준 채무는 2010년 9505억 원, 2011년 9502억 원, 2012년 9452억 원, 2013년 8964억 원, 2014년 8631억 원, 지난해 8795억 원으로 감소세를 거듭해 왔다.

채무에서 융자금 회수 시 상환 가능한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액(명목상 채무)을 뺀 실질채무는 2010년 3943억 원, 2011년 3881억 원, 2012년 3741억 원, 2013년 3557억 원, 2014년 3021억 원, 지난해 2699억 원으로 급감했다.

올 들어서는 외부 차입금 전액인 2억 원을 포함, 모두 280억 원을 갚으며 10월 말 실질채무액은 2419억 원으로 낮아졌다.

280억 원은 △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원가 검토 TF팀 중점 가동 △경상경비 절감 △축제성 경비 축소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보조금 및 대규모 투자 사업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마련했다.

도는 특히 2016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1705억 원 중 143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추가 세출 구조조정 절감액을 더해 모두 1499억 원(원금 1476억 원)의 실질채무를 덜기로 했다.

시 · 군 융자금 수요감소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저금리 상황에 적합한 이익잉여금 활용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회계법인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일부를 활용키로 한 것이다.

내년에는 이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77억 원을 추가로 상환, 실질채무는 666억 원으로 급감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채무관리 안정화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채무 또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로 채권 발행액이 감소하며 2021년 4748억 원으로 줄고, 한시적 채권 매입 면제에 따라 매년 14만 명의 주민이 45억 원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채무가 2010년 392.2조에서 2017년 682.7조로 240.5조, 61.3% 증가하는 반면, 충남도의 실질채무는 3943억 원에서 666억 원으로 83.1%가 줄게 된다"며 "이는 빚을 줄이기 위해 충남도가 얼마나 알뜰하고 살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충남 경제발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한 기자

충남교육청 스쿨넷 사업 연대 책임론 제기

김용필 의원, 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교육청이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단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집단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예산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필 의원(예산1)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스쿨넷 관련 도교육청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강진원 TJB 취재부장이 '도교육청 스쿨넷 어떻게 진행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최인희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팀장, 이상선 시민단체 대표, 송호근 한서대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섰다.

강 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사업 선정 관련 대부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특정업체를 위한 교육청의 봐주기, 보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할 사안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185억원짜리 초대형 사고를 냈지만, 누구 하나 사과와 반성이 없다. 교육감이 최종 책임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185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도·감독이 부실했다. 조직적 또는 연대 책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8명이 기소됐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적어도 문제가 불거졌다면, 업체와의 계약 효력 중지라든지, 관련 공무원의 직무정지 정도는 내렸어야 했지만, 도교육청이 온정주의, 조직적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스쿨넷 사업의 비리를 억제하기 위해선 비영리단체 설립을 통해 3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단일 사업자 추천이 되고 있어 기존 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복수 추천제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 팀장은 "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 실무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업 자체가 학교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스쿨넷 사업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의 기존 인터넷망, 통신·보안장비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정복기자

신용현 의원,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상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한도가 2배이상 상향되고, 입원급여·장의비가 신설되는 등 연구실사고 보상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은순 의원 "보령 중앙 도서관 재건축 또는 신축 이전해야"

보령시의회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일 보령시의회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 중앙도서관의 재건축 또는 신축이전을 제안했다.

최은순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 중앙도서관은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중의 일부인 4층과 5층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준공된 지 24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인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도 상태가 특히 심각한 D등급으로 평가되어 안전상의 위험도가 높은 취약한 수준의 건축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도서관 서고에는 각종자료를 포함한 서적 10만 여권이 최상층에 설치된 목재 책장에 진열하고 있어 서적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책장이 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의 미설치로 4층 5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하지만 계단 높이의 급경사로 인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들의 출입이 위험하다.

최은순 의원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로 재건축 또는 신축이전 계획을 세워 우리시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혜택을 누리며 평생교육의 구심점인 교육기관 역할과 독서문화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에서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보령=이정복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탄핵을 의결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헌재가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탄핵사유 판단의 쟁점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준비절차기일을 별도로 열기로 결정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진행하지 않았던 절차다.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을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준비절차기일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 3명이 진행하며,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사전에 준비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협의한다. 준비절차기일은 공개가 원칙인 관련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된다.

준비절차기일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최소 두 차례 이상을 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양 측에 내일(21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에 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측은 "준비기일에는 변론절차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리인이 와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결과는 준비절차기일에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탄핵 사유 관련 수사기록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국회 측의 답변서 공개에 대해 자제시켜달라며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소송지휘 요청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헌재는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선기자

황권한대행 "대선 출마 의사 전혀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부득이한 인사를 단행해 그 공백들을 메워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관장) 공백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도시철도 2호선 계획 따른 대책마련 정책간담회

윤기식 의원, 지역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자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동구 자양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계획(동대전로 구간)에 따른 대책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체계분석연구팀장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및 동대전로 구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윤기식 의원이 좌장을 맡고, 대전광역시의회 김경훈 의장,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 자양동 주민대표, 이원식 자양동 주민자치위원장, 박민자·이나영 동구의회 의원, 이용상 우송대 교수, 장시득 대전시 트램건설계획과장, 정예성 미래철도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윤기식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어, 지역주민들께 도시철도 2호선의 전반적인 추진계획과 동대전로 구간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환기자

"악취문제 해결 없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미래 없다"

홍성군의회 이상근 특위위원장, 충남도에 사조농산 이전 및 폐업 보상 강력 촉구

홍성군의회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과 5명의 위원들은 20일 10시30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취문제 해결 없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미래는 없다며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충남 발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사조농산 축사이전 및 폐업 보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는 현실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사조농산 축사이전 및 폐업 보상이 충남도의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축산악취로 인한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기업들이 첨단산업단지에 등을 돌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축사이전 및 폐업 지원은 환경법에 의한 악취 허용기준 초과 등 법적 문제가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권자이며 원인제공자인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동두천시가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양주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조정으로 축사 이전 및 폐업 보상비를 경기도에서 70% 부담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각각 15%씩 부담하여 수년간 계속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 사례를 충남도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대권주자로 불리는 안희정 지사는 대권을 바라보기 이전에 충남도지사로서 도백의 능력을 내포신도시 주민 앞에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그동안 충남도는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했고, 종합병원 하나 유치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대형 마트 하나 유치하지 못했다. 축산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내포신도시를 위해 안희정 지사가 전면에 나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내포=전용식기자

이희환 의원, 대동·금탄동 지역주민들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이 20일 대동보건진료소에서 대동·금탄동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희환 의원은 대동·금탄동 진입로 확장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동보건진료소에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감사패를 받은 이희환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도 적극 해결하기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 제2차 회의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정책 자문 요청 위해 마련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은 20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정책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토론 결과로 도출되는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집행부 담당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발전적이고 양질의 회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자문위원들은 ▲학교 현장 상담 인력 충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적 예방활동 전개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 치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체계 확립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분과 위원들은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부모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교육당국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자문을 받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소중한 의견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분야 전문가이신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현실에 와 닿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DT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서해중심 항만 물류 중심도시 거듭"

이 완 섭 서산시장 2016년 결산기자회견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숨 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송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1천여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화합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를 서산-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의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서산 대산항선 철도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 등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으로 서산시가 환황해권 국제물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고 전했다.

서산 발전의 대동맥이자 원동력인 서산 대산항의 괄목한만한 발전도 시가 거둔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서해중심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이달 14일 기준으로 10만6,335TEU를 기록하고 있어 연말까지 올해 목표치인 11만TEU 초과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 최초로 내년 상반기 중국 영성시 용안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돼 서산 대산항이 명실공히 여객과 물류가 공존하는 국제물류허브항으로 도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 큰 역활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목표대비 210%인 42개 기업의 유치와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서산오토밸리 등의 본격 가동으로 고용확대, 인구증가,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조성해 6차산업의 발전 핵심동력을 확보하고 미국 동·서부 농특산물 판촉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해외 판로를 개척했으며 송아지 생산기지의 준공으로 전국 최고의 혈통한우를 공급하게 된 점도 농·축·수산 분야에서 거둔 성과로 꼽았다.

서산의 생강한과, 달래, 명가조청, 국화축제 등의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각종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액인 20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석동과 해미면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복지강화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시안전통합센터와 24시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힘썼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15회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에 20여만명이 방문해 60여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유발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과 '피너클 어워드 신규 이벤트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것은 서산시를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성과라 밝혔다.

이 시장은 "올 한해 17만 5천여 서산시민이 합심해 염원하고 노력한 결과 미래 서산의 틀을 다질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며 "2017년은 환황해권의 중핵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장은 서산의 백년 미래를 열어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산-대전간 고속도로 건설과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내년 상반기 서산-용안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식을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일종 국회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인, 여수시 등과 대응체계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는 '모두가 화합해 목표를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다' 는 일화관중(一和貫中)의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동 정●●●

학교체육활성화 성과보고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1일 오후 3시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2016학년도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성과보고회에 참석.

2016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21일 오전 11시 10분 오페라웨딩에서 열리는 2016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 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리는 2016년 공동체사업 성고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시청대강당에서 열리는 제6회 지역아동센터의 날 우수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

제19기 노인대학 졸업식

박용갑 중구청장= 21일 오후 2시 대한노인회중구지회에서 개최되는 '제19기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

팥죽 나눔 행사

장종태 서구청장= 21일 오후 1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로데오거리에서 '팥죽 나눔 행사'에 참석.

유성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허태정 유성구청장= 21일 오전 11시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박수범 대덕구청장= 21일 오전 11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市, 도시재정비촉진 8개 지구 5996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해제

사유재산권 보호 · 시민불편 해소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21일부터 전체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으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했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인하여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됨은 물론, 관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호 기자

산성동, 동지팥죽 나눔행사 대전 중구 산성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귀성)는 20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회원 20여 명은 정성껏 조리한 팥죽을 나누며 수익금을 마련, 2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밑반찬 전달사업과 김장나눔 행사에 사용해 이웃사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빈 점포 활용 '청년상인' 모집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중앙시장 내 중앙메가프라자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할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창업비를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오는 30일까지 모집 중이며,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모집분야는 한식, 일식, 중식, 고기류, 분식, 스낵, 패스트푸드 등 푸드코드 형태의 음식업과 기타 스포츠용품 및 기념품 판매업 등의 전략업종으로 창업의지를 가진 창업예정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상인 창업자는 점포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창업교육,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메가프라자는 지난 8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내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청년상인 20개 점포를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구, 다문화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해갈 기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0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마을공방 육성사업 참여기업,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청년층, 다문화여성의 일자리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협약을 맺은 참여기업에서는 커피점토 공예품 기술 및 홍보 · 판매를 지원하고,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에서는 제품 판로개척 등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를 책임지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방 참여자 모집 · 관리에 힘쓰고 구에서는 사업장 조성 및 총괄 관리를 맡게 된다.

한편 구는 다문화가정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 9월 최종 선정 됐으며 중앙시장이벤트홀 2층(244㎡)에 2억 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 내년 2월까지 ▲수공예 작업실 ▲홍보전시실 ▲판매 · 카페형 휴게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금년 일자리 전용 블로그 '전함' 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신규 시책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충신 경제과장은 "마을공방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생산성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청년층 공공 일자리 모델 발굴사업 등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한화종합연구소 장학금 지원

결식아동들 급식 · 학업활동 장학금 449만원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함영신)는 20일 오전 재단 본부 회의실에서 한화종합연구소 한두희 차장, 유성호 사원과 함영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449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한화종합연구소에서 관내 결식아동들의 급식 및 학업활동 지원을 위해 8명의 아이들에게 4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한화종합연구소 한두희 차장, 한화방산 천무사업팀 김용운 부장 2명이 외부 강연을 진행하고 얻어진 수익금 49만원을 대전지역 빈곤가정 아동들의 학업 장학금 지원으로 마련됐다.

한화종합연구소 한두희 차장은 "외부 강의를 통해 얻은 강의료를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연말도 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하게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화종합연구소 유성호 사원은 "올 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장학금으로 결식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유성관광 이 책 하나면 '끝'

유성구, 관광안내책자 '休 유성가자' 발간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유성의 명소를 설명하는 관광안내책자 '休 유성가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책자는 기존 제작본의 내용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 20절 규격으로 양손으로 펼쳐 읽기 편하게 제작됐다.

이 책자는 유성의 가볼만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사진과 상세설명, 위치 등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유성명소 8선, 걷기 좋은 길, 맛집, 숙박, 유성여행 코스도 안내하고 있다.

구는 책자를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등 주요 관광지에 비치해 유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온천과 과학, 전통의 도시 유성의 매력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이번 책자 발간으로 관광객에게 유성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2017APCS 상징조형물 제막식

아 · 태 지역 100여개 도시 총 1500여명 참가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0일 '2017아시아 · 태평양 도시정상회의(2017APCS)'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2017APCS 홍보를 위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APCS는 아 · 태 주요도시 국제 교류 및 미래도시 전략 등 도시간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대전시가 2007년도부터 3회의 도전 끝에 2017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17APCS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00여개 도시의 시장, 학자, 기업인, 청년 등 총 1,500여명이 참가 할 예정으로 2017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시는 금번 APCS 운영위원회 발족과 상징조형물 제막을 시작으로 저명한 기조연사 섭외, 대전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17APCS를 국내 · 외에 본격적으로 홍보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제회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조연사로는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토마스 프레이가 나설 예정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2030년에는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 밖에 토니 블레어 前 영국수상의 부인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셰리 블레어, 글로벌 싱크탱크인 직쏘(JIGSAW) 대표이자 구글 아이디어 전략가 제라드 코엔이 대전을 찾는다.

또한, 대전의 장점과 매력을 살려 APCS에 접목할 예정으로 ▲대전시가 회장도시인 WTA(세계과학도시연합)의 하이테크페어와 공동전시 개최, 개막식 및 전시공간에 첨단기술 적용 등 과학도시에 걸맞는 콘텐츠 도입 ▲KAIST, 충남대 등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포럼 운영 ▲문화행사로 연정국악원의 전통무용, 시립미술관의 "세계유명미술 특별전" 연계 등 대전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외도시 참가규모가 APCS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만큼 대전의 장점과 특색을 앞세워 대외적으로 적극 마케팅하는 한 편, 시민들에게는 APCS 대전 개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APCS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장 수여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구민안전을 위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2명의 모범 자율방범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에서는 매년 야간 방범활동 순찰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한 모범 자율방범대원을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방범대별 1명씩 선발하여 표창해 오고 있다.

박수범 구청장은 "방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초소 정비, 방한장갑 지급 등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매월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는 22개 자율방범대, 469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율방범대는 평균 주 2회 2시간씩 도보 및 차량으로 동별 야간 취약지역을 순찰함으로써 범죄 및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김태선 기자

市-자매도시 호주 브리즈번 APCS 성공개최 MOU 체결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0일자매도시 호주 브리즈번과 2017 아 · 태 도시정상회의(APCS)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지난 18일부터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그래함쿼크 브리즈번 시장과의 접견에 이어 브리즈번 시 그렉 바우든 경제개발국장과 양 도시를 대표해 내년 APCS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지난해 7월 2017 APCS 유치 제안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내년도 APCS 행사의 기조연사, 등록, 숙박 및 교통 등 준비에서 개최까지 브리즈번 시의 노하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향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호기자

부여군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회 열려

도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감소율 11월말 현재 2위… 문제점과 향후 징수방안 논의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부여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99.5%를 차지하는 10개 부서의 실·과·소 및 읍·면장이 참석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공유하고, 개별적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과 향후 징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 부서의 협조체계 아래 체납원인을 파악하고, 강력하면서도 효과 있는 징수방법을 개발, 활발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해 고질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근 부군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소·읍·면이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관허사업 제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각종 공모사업 포함) 제한, 각종 대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제한은 물론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적으로 체납자를 부여군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홍성군 2017년 예산 5237억원 확정

홍성군이 제240회 정례회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4,935억 원 보다 약 6.1%(302억원)가 증액된 5237억 원(일반회계 4,405, 특별회계 468, 기금 364)으로 확정했다.

예산에 반영된 중점사항으로는 ▲인구증가 시책,▲2018년 홍주천년 맞이 기념사업준비 ▲내포신도시 관리 ▲친환경농업활동 육성 ▲축산농가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사업비 등으로 군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포함됐다.

보조 사업으로는 ▲노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무상급식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지원 ▲문화재 시설확충 및 보수 ▲농촌 활성화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3농 정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충남도 역점시책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사업 ▲문화예술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및 정비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균형 있게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유사·중복 투자가 없도록 사전심사를 진행했으며, 사후 평가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사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64건의 사업비 3816백만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홍성=전용식기자

아산시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 달성

충남 아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016년도 3분기까지 수출·입 현황 분석 결과 무역수지흑자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2016년 3분기까지 수출·입 동향은 전년도 대비 수출은 4.1% 감소한 325억5천7백만달러, 수입은 1.8% 증가한 13억7천4백만달러, 무역수지는 311억8천1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무역협회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출액 1위인 동시에 무역수지흑자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개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나라 무역수지흑자(747억달러)의 41.6%를 차지하는 놀라운 결과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호조를 이루었으며 주요 원자재인 철강, 비철금속, 원유 등 자본재 수입이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축으로 하는 탕정, 둔포 배후단지가 완공되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아산지역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성과 높아

중소기업 125개사 301개 인증 지원

각 나라별로 상이한 해외규격, 높은 인증비용이 수출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125개사에 FDA(미국식품의약품국 인증), CE(유럽공동체마크), CCC(중국강제인증) 등 301건의 인증획득 비용(지원액 18억1400만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아산에 소재한 ㈜선인은 식품원료(휘핑크림)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5년에 약 2백만불을 수출했다. 주로 이슬람권 식품 시장을 진출 목표로 해 해외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수행했다. 하지만, 시장진출에 필수인 HALAL 인증을 국가별로 획득해야해 비용부담이 높아 애로를 겪었으나, 중기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해 인증획득 지원을 받아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수출액이 100% 증가한 4백만불을 달성했다.

이인섭 청장은 "최근, 국가간 FTA체결이 활발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다. 우리 청은 2017년에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수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철도공단 공사대금 1조 1000억 원 연말까지 집중 집행

특별지원반 운영으로 원도급사부터 현장근로자까지 대금 적기 지급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6년 연말연시 대금지급 특별지원반을 운영, 공사대금 약 1조 1000억 원을 연말까지 집중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반 운영으로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 장비임대업체, 자재업체 그리고 현장근로자까지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특별지원반 운영은 19일부터 '17년 1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영되며, 철도건설사업 공사대금, 토지보상비, 용역비, 지급자재비 등 약 1조 1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KR체불e제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하도급 근로자까지 실시간 지급 및 알림을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반은 헬프데스크(Help Desk), 전자조달, 예산·회계, 건설사업, ERP연계 5개 분야별로 주·야간으로 운영되며, 지급 현황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영일 이사장은 "2016년에도 연말연시 철도건설 협력업체와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시에 지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올해도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이 가장 부담

과다여부·지출금액·3년간 부담률 증가… 개선필요 항목 모두 1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이 61.4%로 가장 부담

전력부담금은 첫째, 항목별 과다여부(48.4%), 둘째, 지출금액, 셋째,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가 가장 높고, 넷째,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되어,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담금으로 인한 자금부족 경험 71.1%에 달해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나왔다.

▲부담금제도 운영전반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26%), 유사 부담금 많음(21.6%),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5.2%), 과도한 부담수준(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법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주요 부담금 요율조정(13%), 신설과정 및 사후관리 강화(8.2%) 순으로 조사됐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아산맑은쌀 유통사업법인 설립 협약식 열려

아산시는 아산쌀의 공동브랜드인 '아산맑은쌀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개선으로 시장교섭력 강화와 판로확대를 위해 둔포농협과 영인농협이 참여하는『아산맑은쌀유통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19일 가졌다.

양 농협은 협약식 이후 아산시가 포함된『아산맑은쌀유통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적절차와 함께,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2017년 1월중으로 정식 발족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은 "유통경로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아산맑은쌀유통사업법인』이 설립될 경우 양 농협은 고품질의 아산맑은쌀 생산과 가공에 주력하고 유통사업 법인은 아산맑은쌀 판매, 유통에 대한 마케팅사업에 주력하여 시장에서의 브랜드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대형소비처에 대한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어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쌀 시장개방화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ㄴ=리량주기자

백석대학교 실용음악전공, 일곱 번째 정기공연

'단 하나의 추억' 주제로 홍대 공연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종) 문화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은 12월 22일 저녁 7시 서울 홍대 앞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단 하나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총 6개 팀의 밴드 쇼케이스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재즈와 팝, 락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 공연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별이 이번 공연에는 백석대학교 출신 2명의 아티스트가 포함된 '와러써커스'가 게스트로 초청돼 관심을 더하고 있다. 와러써커스는 지난 2014년 슈퍼스타 K 시즌6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고, 2015년 KBS 탑밴드 시즌3에서 준우승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용음악전공 최우혁 주임교수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전공은 다양한 장르별로 개설된 앙상블 수업으로 실전 경험을 강조해 KBS 탑밴드 시즌1에서 라틴 앙상블 클래스 '라떼라떼'가 8강에 올랐고,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이파워밴드'는 4강까지 오르는 등 연주능력과 실력을 인정 받았다"며 "올해도 백석대를 대표하는 밴드들이 총 출동하는 밴드 쇼케이스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수준 높은 음악 선율로 추운 겨울 좋은 추억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충남대 · 한밭대 종합청렴도 낮아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국공립대학의 연구비 부당집행과 횡령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응답자가 30.5%에 이를 정도로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대학 36개와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 및 인식에 대해서 일반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감점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도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총 19,478명으로 국 · 공립대학 12,183명, 공공의료기관 7,295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을 이용한 조사를 진행했다.

국 · 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전년(5.88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계약분야 청렴도(7.58점)는 0.1점 상승,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5.58점)는 0.04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청렴도 최상위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6.54점), 한국해양대학교(6.33점), 강릉원주대학교(6.30점)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계약상대방의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경험률은 소폭 증가(0.8%→1.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

연구 및 행정분야 부패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연구비 위법 · 부당집행 경험률(12.0%→11.0%)이 가장 높았고, 연구비 횡령(10.5%→9.5%), 대학 예산의 위법 · 부당 집행(7.5%→7.3%),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2.8%→2.4%)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국 · 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개 대학 67건으로 전년(17개 대학, 38건)보다 29건이 증가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연구비 횡령, 금품수수는 감소한 반면, 연구비 부당집행과 예산목적외 사용 등이 증가하였다.

부패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비 위법 · 부당집행(32.8%), 연구비 횡령(17.9%), 금품 · 향응수수(17.4%), 예산 목적 외 사용(14.9%), 공금횡령 · 유용(10.4%)순이며, 직급별로는 교수가 66명으로 97.0%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하락했다.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내부청렴도(7.12점)는 0.11점 상승, 외부청렴도(8.87점)는 0.08점 상승하였으며 정책고객평가(7.43점)는 0.6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보면, 강원도 삼척의료원(8.64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55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8.4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중 최고점을 받은 충북대학교병원(7.70점)은 전체 의료기관 중 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설문대상자별로 보면,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의 평가점수(9.67점)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직 · 퇴직자(5.85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약품 ·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30.5%로 쌍벌제 도입(「약사법」개정, '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중에는 이직 · 퇴직자(47.2%→76.9%), 내부직원(26.2%→29.3%), 관리 · 감독기관(0.0%→0.6%)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률의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관행으로 여겼던 리베이트 수수를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총 15개 기관 39건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부패유형은 공금횡령 · 유용(34.2%), 직권남용(21.1%), 진료비 부당징수(21.1%), 금품 · 향응수수(12.8%)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권 국립대학들의 청렴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에서 충북대가 2등급을 받은 반면, 충남대와 한밭대는 4등급을 받아 저조했다.

계약분야 청렴도는 한밭대와 충북대가 3등급을 받은 반면 충남대는 5등급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및 행정분야 청렴도에서는 공주대가 1등급을 받았고, 충북대는 3등급, 충남대와 한밭대가 4등급을 받았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도로명주소 업무 '우수기관' 선정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전국 도로명주소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도로명주소 D/B 정비 ▲상세주소 부여 실적 ▲국가기초구역 관리 ▲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등 7개 분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10월에 열린 제97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시민 및 내방객들이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 · 교체 및 재설치한 것과 보행자용 중심 도로명판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주소 찾기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daejeontoday.com

호서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2016 전국 Y-SMU포럼 평가대회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간호학과 Y-SMU동아리(지도교수 박승미)가 지난 17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16 전국 Y-SMU포럼 평가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젊은 세대 참석과 지역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호서대 Y-SMU(Youth-SaeMaulUndong) 동아리는 올해 사업으로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Safe Sex 캠페인'을 펼쳐, 재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올바른 성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배란주기 계산법, 올바른 콘돔사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서 재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Y-SMU동아리 학생대표인 김민정(간호학과 3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올바른 피임방법이나 성병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발표하였다. 직접 교육에 참여한 것이 정말 재미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간호사로서 대상자를 교육할 때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호서대 '간호학과 Y-SMU 동아리'는 2015년에도 '팜팜판 농촌봉사활동'이라는 사업을 통해 2015 전국 Y-SMU포럼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아산=리량주기자

ETRI, LTE기반 철도통신시스템 국제표준 본격화

긴급 재난시 영상전송, 고속운영시 끊김없는 통신 가능

국내 연구진이 KTX 등 고속열차 내에서 고속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철도무선통신망 기반기술을 국제표준화로 이끌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주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5개 기관과 공동으로 "일반 및 고속철도 무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화"사업에 참여, 표준화 부분을 담당, 본격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TRI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표준화 연구"사업을 통해 철도통신 국제표준화기구에 6건의 표준기고서를 제출, 채택 되었다. 연구진은 본 기술을 통해 미래 철도 이동통신시스템의 국제표준기술로 자리매김토록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진이 표준화를 추진하는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통신시스템은 기존 음성 위주의 철도통신보다 전송속도가 약 30배 정도 빨라 영상전송이 가능하고, 300km/h 이상의 고속 열차 내에서도 고속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주파수는 718~728MHz, 773~783MHz대역이고 대역폭은 10MHz이다.

따라서 철도 운영에 관한 전용망을 구축하여 철도의 긴급 재난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각 열차를 통제하거나 철도 신호제어 등 관리에 최적이며, 철도운영자, 승무원, 역사 근무자에게 사고 영상의 전송 등 정확한 상황판단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철도 전용기관이 일반철도 이용객과는 다른 별도의 내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래픽 상승으로 인한 통신장애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ETRI는 지난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 ITU-R SG5 및 3GPP SA1 표준화 회의에서 철도통합무선통신시스템(LTE-R)의 운영 및 기술적 특성과 구조에 대한 기고서를 제출하고, 철도통신 표준화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ITU-R SG5에 발표한 내용은 차기 세계전파통신컨퍼런스의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된 "철도와 선로변 간 전파통신시스템" 신규보고서에, 한국이 구축중인 700MHz 대역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통신시스템 특성 및 현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내용을 세계전파통신컨퍼런스 예비회의(CPM) 문안에 포함되도록 하여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통신시스템(LTE-R)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3GPP SA1에 발표한 내용은 국제철도연맹(UIC)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철도이동통신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기고서로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을 참조표준으로 반영하고, 향후 미래철도이동통신시스템의 구조를 한국에서 제안한 철도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윤학선 일반 · 고속철도 무선제어연구단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LTE기술을 철도에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운영 전용망 구축을 통해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산타

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성탄 선물 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지사장 강철준)는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www.childfund-daejeon.or.kr 관장 유미)을 방문, 대덕구 내 저소득 7가정, 아동 10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성탄 선물을 지원했다.

이번 성탄 선물 지원은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탄 소원 공모사업 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가정에게 냉장고, 자전거, 의류, 겨울용 점퍼, 운동화 등 아동들의 소원성취를 위해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다.

강철준 지사장은 "추운겨울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성탄 선물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다가오는 성탄절, 아동들과 가족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탄 소원 공모사업 심사를 통해 냉장고 선물을 지원받게 된 A(11, 대덕구 거주)아동은 "오래된 냉장고가 몇 달 전 고장이 나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어 상하기도 했고 힘든 노동일을 끝내고 귀가하시는 아빠께 시원한 물 한잔 드릴 수가 없어 속상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도 튼튼한 냉장고가 생겨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병배기자

개선된 운전면허시험 전면 시행

경찰청,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 기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1월, 제1 · 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발표한 이후 법령개정과 면허시험장 · 운전학원의 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2일부터는 개선된 시험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의 주요 내용은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수가 난폭 ·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법령과 보행자 보호 ·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를 추가하여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장내기능시험의 평가항목은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사로 좌 · 우회전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가속코스를 추가하여 현재 2개에서 7개로 확대되고,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이상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은 차량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87개를 57개로 정비했으며, 또한, 방향지시등(깜박이)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실격기준도 강화하였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시간은 학과는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며, 도로주행은 현재와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했다.

박봉관기자

중부발전, 화력발전소 중 유일…우수 발전소 선정

<201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정창길)은 20일 '201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에서 본사 소재지가 있는 보령지역의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건설본부가 화력발전소 중 유일하게 지원사업 우수 발전소로 선정됐다.

우수발전소 선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16조에 따라 매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 발전소가 선정된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연간 기본지원사업비 3억원 이상인 57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해당분야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10명)가 지원사업을 평가하였다.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건설본부는 4군(원전외 발전소)에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보령발전본부는 발주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5년에는 주변지역 4개면 77개리를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에 소규모 집기류를 지원하고 육영사업으로 장학금 지급은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대상 국외역사문화 탐방으로 백두산을 다녀와 주변지역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4개면 학교에 교육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인프라 개선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 밖에도 60대 대상 건강검진사업, 지역문화축제 지원 등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달 『제4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이은 쾌거이며, 보령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사업장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령=이정복기자

세종시, 중소기업 활로 개척 '성과'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 사절단 운영…해외 수출 계약 62% 상승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세종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계약액은 1,300만달러(약 150억원)로 전년대비 62% 상승했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와 우수제품 홍보를 통한 국내 판매도 전년보다 157% 늘었다.

세종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국내 판로, 산학 R&D, 육성자금, 창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지원했다.

우선 무역사절단 운영,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11개 세부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도와 올해 1천3백만불의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

전시박람회 참가(41개 기업), 홈쇼핑 입점(4개 기업) 등을 통해 13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첫걸음 R&D,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 산학 R&D에 4억원을 투입하고 16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기술수준 30.5% 향상, 기술자립도 32.4% 개선, 기업당 2.5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세종=김정환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충남도 153명, 사망 24명

전국의 2.9%… 천안시 56명(사망 6명), 아산시 37명(사망3명) 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충남지역의 피해자는 총 153명이고 이중 사망자가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에 따르면 2016년 12월 16일까지 접수된 충청남도 피해신고는 153건으로 전국의 2.9%에 이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열 번째로 많았다.

이중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15.7%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 충남 전체 피해접수의 76.5%인 117명이다.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천안시가 56명(사망 6명)으로 충남 전체의 36.6%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아산시 37명(사망 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는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잠재적인 피해자는 29만명에서 227만명에 달한다. 12월 16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도 많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를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 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예용 소장은 "특별조사기구는 개인과 조사대상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 제조판매사 및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 판매가 중단되어 법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활동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신고전화만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부여소방서, 대형재난 발생대비 의사결정훈련 실시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지휘관과 통제단원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산소방서, 어린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조기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20일, 산들예랑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생 및 지도교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백운집 대전충남병무청장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격려 백운집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장은 올해 마지막 병역판정 검사일인 20일 검사장을 찾아 수검을 받고자 방문한 병역의무자를 격려했다.

서천교육지원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육의 미래" 명사 초청 특강 지난 19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을 초청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홍성교육지원청, 홍성사랑장학회에 장학금 2억230만원 기탁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이 지난 19일 홍성사랑장학회에 장학금 2억2백3십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전)홍성군학교어머니협의회에서 홍성교육지원청에 전달한 장학금을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에 기탁한 것이다.

청각장애인, 인터넷뱅킹 시 ARS 인증 많아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은행은 ARS 추가본인인증(이하 ARS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이용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8~9월까지 국내 주요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인터넷뱅킹 금융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인터넷뱅킹 이용 시 '단말기 지정 신청'에서 5개 은행, '개인정보 변경' 및 '공인인증서 등록', '계좌이체'에서 3개 은행은 ARS 인증이 필요해 청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일부 은행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PC) 화면에 인증번호를 동시에 표시한 후 전화기에 입력하는 'ARS 번호 화면 표시'를 제공하고 있었다. 화면에 표시된 인증 번호를 약 10초 이내에 전화기에 입력하면 돼 청각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일부 금융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은행은 ARS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OTP'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존 OTP에 비해 은행 간 호환성이 떨어지고, 안드로이드 OS 휴대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자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ARS 인증번호 화면 표시' 확대 ▲생체 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조사 내용을 공유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서산경찰, 노인대상 악성 사기범 검거

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A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경부터 2012년도경까지 고소인 L씨에게 "수원시 소재에 땅 개발 보상금 36억원을 받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수십회에 걸쳐서 L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여관등지에서 생활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이 실제로 있다고 변명하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A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A씨의 종친회 토지에 대해서도 10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산=김정한기자

AI 노출 고위험군 잠복기 능동 모니터링

AI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고위험군 9000명 이상 집계

국내 야생 조류와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 확산하고 AI 위기경보도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이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42개 AI 살처분 현장에 중앙역학조사관을 보내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레벨D세트) 등 비축물자를 지원하는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조치사항'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가금류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9183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보건소를 통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 후 잠복기(10일) 동안 능동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장종사자 1276명, 살처분 작업 참여자 6504명, 대응요원 903명, 포크레인기사 등 현장노출자 500명이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9183명 중 3775명은 10일간 모니터링이 완료돼 남은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5428명"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기 증상 등 신고자가 총 26명이었으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현재 유행 중인 계절 인플루엔자 A(H3N2)로 확인된 1명 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AI는 야생조류나 AI 가금류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일반 국민은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H5N8의 유전자 일부를 분석한 결과 인체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항바이러스제 내성 관련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진행한 동물실험결과에서도 유전자 변이는 없었으며 병원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의 H5N8 백신주를 제작, 동물실험을 통한 감염 방어 능력을 확인한 상태이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유행 중인 AI H5N6 바이러스를 활용해 동물실험 등을 통한 인체감염 위해도 평가와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내년 2월경 나올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긴급구조통제단 의사결정훈련

당진소방서,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위해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19일 15시 당진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구조 통제단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의사결정훈련을 실시했다. 의사결정훈련은 지역에 맞게 설정된 재난상황에 대해 시간대별 상황전개를 부여, 부여된 상황에 대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재난상황의 위험성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송악에 위치한 현대제철 특수제강 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통제단 임무(역할) 및 임무수행 절차를 토론하며, 재난 상황의 위험성과 현장 여건변화 등 예고 없이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수행을 논의했다.

방상천 당진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현대제철 뿐 아니라 관내 비슷한 여건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재난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평상시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최근수기자

'통계 발전 협의체 토론회' 실시

충청통계청, 대전 · 세종 지역…지역통계 개발 등 위해 개최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진찬우)은 20일 충북 청주시에서 대전시와 세종자치시 통계담당자와 함께 지역통계 개발, 발전 및 확산을 위한『대전 · 세종 지역통계 발전 협의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도 충청통계청에서 개발한 세종자치시 사회조사, 대전 유성구 및 세종자치시 컨설팅 진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개발등 각 기관과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협력및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송병배기자

금강유역환경청, 분석 능력과 신뢰성 국제적 인증

"ERA" 주관 국제숙련도시험 참여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증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국제숙련도 시험 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 이하 "ERA"라 한다)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아, 환경분야 시험 · 검사 기관으로서의 분석 능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다.

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영국인정기관(UKAS)이 인정한 국제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1977년부터 전 세계 80개국, 수천 개 이상의 분석기관에 표준시료 및 국제숙련도 시험시료를 제공하여 숙련도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시험 ·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ERA로부터 제공받은 시료의 농도를 분석 후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시험은 전 세계 2,298개의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은 법정 분석기관으로서 시험 · 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국제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분석 체계를 유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 ·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서천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의 위험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고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최근 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비교해 손잡이 부분에 압력게이지가 부착되지 않아 내부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본체용기 부식 등과 같이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화기 사용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상 마을과 주택 등에 대해 노후 가압식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를 유도하고, 소방특별조사나 소방안전교육 시 관계자 등에게 보관중인 노후소화기를 교체토록 안내하고 있다.

구영훈 예방주임은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며 "외관상 녹이 슬거나 부식이 심하면 사용하지 말고 소방서나 인근 119안전센터를 통해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천=김태선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이웃의 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에서는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주간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한 보호기간 시행에 앞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사전 홍보기간을 갖는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가족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해 집중 홍보로 신고를 유도하고,

관할 상담소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로인해 발굴된 위기가정 중 자력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적 보호 ·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기간 지역별로 관리중인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 내 상습 · 고질적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내포=양성업기자

세종시,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2017학년도 공립 유 · 초 · 특수(유 · 초)교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17학년도 공립 유 · 초 · 특수(유 · 초)교사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를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20일 발표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총 454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sje.go.kr)에서 개별적으로 합격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종촌중학교(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26)에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실시하고, 내달 24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이정복기자

"구직자 10명 중 8명, 구직난 심화"

구직난 심화됐다고 느낀 이유로 '서류 등에서 탈락하는 횟수가 늘어서' 1위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구직 한파가 불어온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올 하반기에 구직난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2,653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체감하는 구직난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3%가 '구직난이 심화됐다'라고 답했다.

'예년과 비슷했다'라는 응답은 20.4%였고, 완화됐다는 답변은 0.3%에 그쳤다.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느낀 이유로는 '서류 등에서 탈락하는 횟수가 늘어서'(41.5%,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40.3%), '질 낮은 일자리만 많아서'(39%), '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36.6%), '채용을 실시한 기업이 줄어서'(34.3%), '경쟁자의 스펙이 높아져서'(27.9%), '채용규모가 축소돼서'(27.3%), '국내외 악재가 많아서'(21.6%), '주변에서 다들 어렵다고 말해서'(15.7%), '채용 절차가 까다로워져서'(14.5%) 등의 이유를 들었다.

심화된 구직난이 하반기 구직활동에 끼친 영향으로는 절반 이상인 54.7%(복수응답)가 '눈높이 낮춰 입사지원'을 선택했다. 이밖에 '지원횟수 증가'(49.7%), '묻지마 지원'(29.6%), '자격증 등 스펙 향상에 집중'(19.3%), '해외 취업을 알아봄'(11.7%), '창업을 준비함'(9.9%), '공무원으로 진로 변경'(6.8%), '인턴 등 실무 경험 쌓기에 매진'(6.7%), '취업 사교육에 투자'(6.4%) 등이 있었다.

구직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내후년 하반기 이후'(3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29.4%), '내년 하반기'(22.1%), '내후년 상반기'(10.7%)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구직난으로 인해 얼마나 압박을 느끼고 있을까?

10명 중 9명(94.1%)은 계속되는 구직난 때문에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구직자의 96.6%는 구직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으며,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도 88.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면증'(43.7%, 복수응답), '만성 피로'(38.4%), '두통'(35.1%), '소화불량'(31.4%), '목, 어깨 등 결림'(27%),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23.1%), '피부 트러블'(16.4%), '과민성 대장 질환'(14.4%), '근육통'(10%), '이명'(7%) 등의 질환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자의 40%는 입사를 목표로 한 기업이 올 하반기에 채용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형태는 '중견기업'(49.2%, 복수응답), '중소기업'(32.6%), '대기업'(32%), '공기업 및 공공기관'(19.8%), '외국계 기업'(10.9%)의 순이었다. 업종은 '제조'(21.7%, 복수응답), '전기/전자'(16.1%), '정보통신/IT'(14.8%), '유통/무역'(13.2%), '건설'(10.2%), '기계/철강'(8.5%), '자동차/운수'(8.4%) 등이 있었다.

이정복기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역량강화 및 지침 설명회

충남도교육청, 도단위 수업탐구 공동체 회원 등 250명 대상 개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9일부터 20일까지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고등학교 교감 116명과 교육과정 담당자 116명, 도단위 수업탐구 공동체 회원 등 250명을 대상으로 2017 충청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교정책과 윤여준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의 '충남교육의 방향과 참학력' 특강과 충남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안내, 경북여고 송영필 교사의 타 시도 사례발표인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함양과 과정 중심 평가', 학교규모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덜어 내고 빼내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성찰하고 바꿔보는 학교혁신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학력을 통해 전인적 학력을 추구하는 기본을 교육과정에서 찾겠다는 것. 김지철 교육감도 인사말에서 이를 강조했다.

이에 부응하듯 250명의 충남 관내 고등학교 교감, 교육과정 담당 교사들은 학교의 산적한 업무들을 물리치고 참여한 설명회임에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토의하고 협의해 내년 충남 교육과정에 대한 밝은 기대를 갖게 했다.

내포=전용식기자

태안 화동초, 겨울 전통놀이 운영 화동초(교장 강희대)가 지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체험 활동을 운영 하고 있다. 첫날인 19일은 유치원생부터 6학년생까지 화동관에서 윷놀이, 비사치기 등 전통놀이를 즐겼고 가래떡을 구워먹기와, 호박고누, 우물고누, 딱지치기 등의 놀이를 체험 했다.

'당진교육사랑 교육기부 협약식' 가져

당진교육지원청-신성대, 기관 간 협력 강화하기로 약속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20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신성대학교와 '2016 당진교육사랑 교육기부 협약식'을 갖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진로직업체험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로체험교육과 자유학기제 자율 활동에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신생대학교는 지역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교육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정상화에 기여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버스 운영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중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거점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있다.

전석진 교육장은 "우리지역의 대표 신성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행복을 이루는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가 되어 기쁘고 참된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행복 당진교육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화폐박물관 겨울방학행사' 진행

화폐문화 체험, 오는 27일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펼쳐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o.com) 화폐박물관에서는 오는 27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과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우리 화폐문화를 재미있게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겨울방학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화폐박물관 겨울방학행사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악세서리 만들기'(매주 목요일), '나의 새해 희망액자 만들기'(매주 수요일),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에코백 만들기'(매주 금요일)를 진행하며, 화폐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 싶어요! 내가 사용하는 돈 이야기'(매주 화요일), '재미있는 돈 이야기'(매일)가 진행되며 퀴즈를 통해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희망 어린이에게는 전시물 체험학습지를 제공한다.

한편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는 2017년 1월 8일까지 영문 캘리그라피展 '피어오르다(Floreo)'가 전시 중에 있으며, 그 뒤를 이어 10일부터는 세계의 새롭고 다채로운 기념주화를 선보이는 세계기념주화展 'Awesome Coin'이 열린다. 특히 세계 기념주화전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안나-엘사 및 울라프 기념주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논산 강경중, 윤봉길 의사 기념관 방문

강경중학교(교장 박병동)은 3학년 학생들이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찾는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19일 실시했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윤봉길의사 기념관에 도착하여 윤의사의 유언이 적힌 액자를 보면서 모두 숙연해졌다. 윤의사는 25세의 일기로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국왕의 생일과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견군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을 죽이고 일본 요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오사카에서 순국하였다.

학생들은 해성사의 설명과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윤봉길 의사의 뜻을 되새기며 나라사랑의 의지를 다졌다.

논산=김태선기자

행복한 중학교 생활 위한 학부모 설명회

대전시교육청, 중학교 생활의 성공적 정착 지원 위한 자리로 마련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2월 20일(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행복한 중학교 생활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부모 설명회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300여명에게 중학교 교과학습 방법 및 생활지도에 대한 안내로 초·중학교급 간 단절감 극복 및 중학교 생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복한 중학교 생활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는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유·초·중·고·대학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예비 중학교 학부모들의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학부모 설명회는 겨울 방학을 앞 둔 시점에 실시하여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이 중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예비 중학교 학부모라는 공통점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 열정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같은 지역별 학부모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지속적인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예비 중학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예비 중학생들에게도 중학교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금산여자중학교, 꿈·끼 탐색주간 운영

금산여자중학교(교장 민병희)는 19일부터 23일 5일간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꿈·끼 탐색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꿈·끼 탐색주간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사운영 취약시기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문학 강의, 직업인 특강, 직업교육 및 통일교육 특강, 직업 체험 등이 실시된다. 인문학 강의는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인디고서원 정다은 강사의 특강, 직업인 특강 시간에는 현직 변호사, 동화작가, 경찰관, 기자, 의사, 중등학교교사, 심리상담사, 유치원교사 등이 강사로 초청되어 학생들이 현직에 있는 강사와 함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금산여중 관계자는 "꿈·끼 탐색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진로 설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기자

반딧불 학습멘토링 활성화 위한 간담회

아산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습 지원 위해 개최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지난 17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아산교육지원청과 공동 주관하고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후원하는 관내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 복자여고, 한올고등학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멘토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지행 학생은 "지난 4년간 정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자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코칭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과 청소년, 아동들에 대하여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멘토도 스스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외고 관계 교사는 "충남외고 학생들이 배움의 가치를 사회봉사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명희 여성가족과장은 "아산시는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학교 및 사회 생활적응을 위해 반딧불 멘토사업, 반딧불 우람이 태권동아리, 반딧불 문화체험사업, 해맑은 미래 지원사업, 충남외고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반딧불 학습멘토를 적극 추진해 통일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3년부터 4년간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멘토사업을 추진했으며 교육교재를 지원하고 충남외국어 고등학교 인재 18명의 학생들이 짝을 이뤄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관심 있는 과목을 지도하고 북한이탈주민 학부모와의 학습지도 관련 상담도 진행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온양고등학교와 아산고등학교 학생 및 복자여고외 3개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사회 문화와 언어장벽 해소를 위하여 독서코칭,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권도 및 문화체험, 스포츠를 통한 상호교류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천안교육지원청·수이닝시 교육국 교육교류

중국 쓰촨성 수이닝시 교사·학생 31명 방문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은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G2국가로 성장한 중국과의 교육교류 강화 및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 쓰촨성 수이닝시교육국과 교육교류를 실시한다.

이 번 교류는 지난 8월 천안교육지원청과 수이닝시교육국과의 교육교류 협약에 의한 것으로 1차와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12월 20일부터 23일 기간동안의 1차 교류에서는 중국 쓰촨성 교육국 관계자 2명, 수이닝중학교 교사와 학생 18명, 수이닝시제2고급중학교 교사와 학생 11명 등 모두 31명이 각각 천안교육지원청, 환서중, 천안청수고를 방문한다.

천안=김정환기자

'산업입지 미래 발전' 밑그림 나왔다

충남도, 중장기 계획 최종 보고회 개최… 새 산업벨트 · 육성지구 정책 본격 추진

충남도 내 산업입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게 될 중장기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도는 20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수급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 도와 시 · 군 산업입지 담당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보고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입지 중장기 발전 계획은 저성장 시대 도래와 주력산업 쇠퇴, 유치 기업 감소, 세계 불황 및 신흥국의 도전 등 충남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마련 중이다.

전환기 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필요성이 부각되고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력 산업과 미래 성장 산업을 담을 최적의 입지환경 조성, 난개발 방지, 산업 및 정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른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충남연구원 연구진은 충청남도 산업 단지 수급 및 중장기발전계획 비전으로 '지역 특성화와 주민 상생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충남 신성장의 기반(산업입지) 구축'을 제시했다.

목표는 '5대 벨트 10대 클러스터 구축과 개별입지 30% 유도를 통한 산업단지 총생산 160조 원 달성(수출 66조)'으로 잡았다.

3대 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입지계획(5대 벨트 10대 클러스터 구축) △체계적인 관리 계획(개별 입지의 30% 유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산업 생산 160조 원) 등이다.

9대 전략으로는 △산업입지 특성화 △계획입지 유도 △인프라 개선 △미분양 관리 △산업단지 재생 △상생산단 관리 △기업유치 △서비스 산업 연계 △상생협력 방안 등이 도출됐다.

도는 조만간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확정 · 고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 · 군별, 산업별 입지 특성에 맞는 특화 산업단지 공급, 투자 유망 산업과 미래 지향적 산업을 위해 새로운 산업벨트 및 육성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입지 공급과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계획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수립을 추진 중인 이번 중장기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도내 산업입지 수급 계획과 2030년까지의 산업입지 발전 계획을 담게 된다"며 "이 계획을 통해 지역 맞춤형 미래 산업에 대응한 균형적 산업입지 공급은 물론, 문화 · 관광 · 서비스 산업과의 융 · 복합 관리가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개정한 '산업입지 수급 계획 수립 지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AI로부터 황새 보호… 예산황새공원 휴관

군, 시설 주변 출입금지 · 방역활동 주민홍보 만전

예산군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AI로부터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예산황새공원을 휴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16일과 17일 공원 내에 있는 황새 2마리가 연이어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 국립환경과학원 정밀검사 의뢰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군은 AI를 사전에 예방하고 황새를 보호하고자 황새공원과 단계적 방사장 3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황새공원 내 사육동에 64마리의 황새가 단계적 방사장 3개소에는 6마리의 황새가 서식하는 등 총 70마리의 황새가 서식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AI가 인접 시 · 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차량을 이용 중점소독 및 예찰활동을 펼치는 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9일부터 휴관 조치에 따라 황새공원과 단계적 방사장 출입구를 모두 차단하고 방역강화에 나섰으며 사육사와 연구원은 사육시설 근무 시 방역복을 착용하고 외부인의 접근 차단과 황새 예찰 활동을 수시로 이행하고 있으며 특이 사항 발생 시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신속한 보고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돼가면서 관내 황새공원과 단계적 방사장 내에 있는 황새도 AI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돼 휴관 및 출입을 금지하게 됐다"며 "AI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공원과 단계적 방사장 주변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시설 주변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황새를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행복도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박차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0일(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종시 해밀리(6-4생활권) 전역에 대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상세설계를 최종 마무리하고, 설계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지침을 마련 ·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빗물의 순환을 자연 상태(도시개발 전)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 · 여과 · 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이다.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빗물이 식생 및 토양으로 침투 · 저류되지 못하여 수질오염 · 지하수고갈 · 도시열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했었으나, '저영향개발기법'이 도입되면 환경문제 해결뿐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 발생도 예상된다.

환경부-행복청은 2015년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6생활권 저영향개발기법' 전면 도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환경부-행복청 및 관계 기관(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 적용을 위한 합동조사 및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해밀리(6-4생활권) '상세설계'는 토지이용계획별 목표량 설정,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적용 및 시설별 상세설계 표준도를 정하고, '설계기준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 기술 개요, 기본도면, 적용효과 및 설계기준 등을 제시하여 설계자 등이 명확히 이해하고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유지관리매뉴얼'은 저영향개발 기술요소의 각 시설물에 대한 성능향상과 안전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 지침을 도입하여 편의성 증진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계획 · 설계 · 시공 · 유지 · 관리까지 총괄하여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저영향개발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 · 설치되도록 적극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마련된 '상세설계도', '설계기준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매뉴얼'을 통해 '저영향개발'의 기술이 크게 확산 ·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해밀리(6-4생활권)에는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발로 인한 물순환 왜곡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되며, 빗물을 23.2mm까지 침투 · 저류시켜 자연 상태의 물순환을 최대한 유지시킴으로서, 수질악화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행복도시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의 도입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우수하고 경제적인 빗물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설계기준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매뉴얼 등을 홍보 · 확산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이 확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도 "저영향개발기법의 상세설계도 마련으로 행복도시가 친환경 녹색 도시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도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저영향개발기법 추가 적용방안 등을 공동 모색하여 행복도시를 건강한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정복 기자

세종시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

고용복지+센터 · 싱싱장터 등 현장모금 행사 벌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에 나섰다.

19~20일 조치원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도담동 로컬푸드 싱싱장터에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현장모금행사를 벌였다.

시민 참여를 위해 북세종(조치원읍, 연동면, 부강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과 남세종(연기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으로 나눠 2일간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콘서트 ▲기업, 공공기관 등의 성금 전달식 ▲희망나눔 유공자 포상식 ▲현장모금 등으로 진행됐다.

20일 오전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는 KBS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라는 성금모금운동을 벌였다.

이춘희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작은 나눔을 실천해야할 때이다."고 말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세종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기부 문의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044-863-5400),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32),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모금 접수처로 하면 된다.

세종=김정환 기자

김석환 군수, 가뭄대비 대책수립 · 추진 당부

"선제적 대응 지금부터 진행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년도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지금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가뭄관련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한자리에서 가뭄으로 인한 농민 불안을 최소화하여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올 강수량이 777.5㎜로 평년대비 66.7%에 그치고 있고, 12월 기상청 예보 결과 홍성군 농업용수는 '주의', 생활 및 공업용수는 '심함'으로 가뭄위기경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내 일부 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이 15%을 기록하고 있어 종합 대책추진이 필수적이다.

이에 군은 합동 TF(가뭄 상황실)팀 운영을 통해 관내 가뭄피해현황을 수시 조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소방서 등 의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가뭄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농민 민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업용 관정 개발(3공, 120백만원) ▲농업용 관정 개발(22공) ▲생활용수 개발사업(관정 20공, 394백만원)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130농가, 75백만원) ▲가뭄극복 긴급누수 저감사업(4,240백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394백만원) 등 관련부서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가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농경지에 물대기 등 농민들의 노력이 필수적이고, 각 가정에서도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2017년에는 공업단지 주변 담수호 및 하천수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착수와 홍성읍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용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정 개발 등의 지속적인 가뭄대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전용식기자

도 농기원, 농촌자원 6차산업 평가회 개최

"농업 소득 제고 · 농촌 경제 활성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9~20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6차산업 관련 농업인과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촌자원 6차산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6차산업 농업인과 담당자 등의 소통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평가회는 발표와 강의, 현장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가회 첫날인 19일에는 농업기술원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이 올해 6차산업 추진 현황과 내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권오성 6차산업화센터장이 '6차산업화 방향 및 충남도 정책 현황'에 대한 강의를 가진 뒤, 추진 사례 발표도 진행했다.

평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견학이 진행됐다.

도 농업기술원 이진영 생활기술팀장은 "농업 소득 제고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비즈니스모델 발굴 경연대회,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및 6차경영체 성공 정착을 위한 시장 론칭 등 마케팅 기술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 정 ●●●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안희정 충남도지사= 21일 오전 10시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에 참석.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산군 배우자 지원 확대

예산군이 2017년도 1월부터 관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았으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왔다.

이에 군은 지난 19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한 '예산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6 · 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내년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군청 또는 각 읍 · 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복지기획팀(339-7404) 또는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방문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수당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상이군경회예산군지회 등 9개 단체에 운영비, 국 · 내외 전적지순례비, 독립유공자 위문,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양성업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동정

축구단과의 협약식

복기왕 아산시장=21일 경찰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경찰대학교 축구단과의 협약식에 참석.

간담회

김홍장 당진시장=2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리는 3농혁신 포럼에 참석, 오후 5시 한국도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열리는 제33차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주재.

당진시의회 송년회

이종윤 당진시의장= 21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6시 모아담아에서 열리는 2016 당진시의회 송년회에 참석.

정례회 폐회식

한상기 태안군수=21일 오전 10시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태안군의회 정례회 폐회식에 참석.

관행 개선계획 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 21일 오전 9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불합리한 행정행태 및 관행 개선계획 보고회를 주재.

온양4동 성과보고회 · 물품나눔 행사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박길남)은 19일, 2016년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 성과보고회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물품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행복키움추진단 단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 성과보고회를 실시하고 종료 후 사랑의 물품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이루어 졌다. 사랑의 물품나눔 행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 소외계층 30여가구에 아산시기초푸드뱅크연계를 통해 지원받은 식료품(음료, 즉석식품 등)을 행복키움추진단 단원이 가정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길남 단장은 "한해동안 온양4동 행복키움지원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 2017년에도 단원들의 끊임없는 열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중 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온양4동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행복키움추진단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수상

태안군, 지방자치부문 대상 수상 · SNS 통한 군정홍보 성과 인정받아

태안군이 한국 소셜미디어 진흥원이 주관한 '2016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 했다.

소셜미디어 대상은 지난 1년간 각 지자체 및 기업 등 단체가 추진한 공식 SNS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 하는 상이다.

군은 지난 17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 올 한해 군정 및 문화관광분야 홍보에 앞장선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 내에 '군정홍보팀'을 신설하고 SNS를 활용해 태안의

관광자원 및 먹거리 등을 적극 알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온라인 SNS 기자단'을 출범, 태안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축제 · 행사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홍보로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관광 태안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군은 공식 SNS 홍보가 시작된 후 짧은 기간에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했으며,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태안TV,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태안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 군 관광 관심도 증대와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홍보매체를 더욱 늘리고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태안군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온라인과 모바일에 태안군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 군의 관광정보 확산과 이미지 상승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태안군만의 차별화되고 품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 SNS 활동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면천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 열려

20일 민간단체 주관 고유제 · 풍물놀이 등 진행

면천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면천은행나무사랑회(회장 김옥현) 주관으로 20일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옛 면천초등학교에 있는 면천은행나무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천연기념물 제551호로 지정됐다.

20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본 행사 외에도 면천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목신에게 고하는 고유제와 풍물놀이도 함께 열렸다.

한편 면천은행나무는 고려 초기 심어져 수령이 약 1,100여 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90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82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었다.

특히 이 나무는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卜智謙) 장군과 그의 딸 영랑과 관련된 설화로도 매우 유명하다.

면천에 살고 있던 복지겸 장군이 병으로 누워 있었을 당시 백약이 무효해 그의 딸 영랑이 인근 아미산에 올라 백일기도를 드리던 중 마지막 100일 째에 신선이 나타나 두견주를 빚어 100일 후에 마시고 그 곳에 은행나무를 심은 뒤 정성을 드리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알려줘 그대로 따랐더니 장군의 병이 거짓말처럼 치유됐다는 내용이다.

한편 당진시는 면천은행나무의 보존과 더불어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영농비 절감에 '효자'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해 도 농가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총 3499농가가 4440회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수치로 주말 임대 등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농기계 수리와 안전이용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52회에 걸쳐 2320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기술교육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자가 점검 · 정비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특수 작업기 등을 포함해 53종 505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적기 기계화 영농 실현을 위해 11종 24대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강상규 소장은 "농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농기계 이용과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해소해 줘 농가소득 향상에 큰 효자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2017년(丁酉年) 해맞이행사 전격 취소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 · 축산인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1월 1일 남산안보공원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2017년(정유년)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아산시는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매년 해맞이 행사를 실시해 왔으나, AI 발병되어 관내 축산농가로 확산되고 지난 16일에는 농림식품수산부가 AI 방역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하게 됐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AI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동안 매년 추진해 왔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AI 추가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방역 예찰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AI 추가 확산 방지 및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거점초소 4개소와 통제초소 5개소를 설치 · 운영하고 방역 및 통제, 예찰활동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장평면 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 총력징수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오는 31일까지로 다가오자 징수반을 운영해 총력 징수키로 했다.

면에서는 행정리 별 분담 책임반을 편성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차종별로 계산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된 자동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어도 농협가상계좌, 지로,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 말일인 31일에 자동 출금된다.

면 관계자는 "면 자체적으로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기간 내 납부토록 주민홍보에 나섰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당진시보건소, 노약자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권고

당진시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의사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플루엔자비아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독감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가장 큰 규모로 유행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심한 양상을 보이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 보건소는 노약자와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한편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 · 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주로 고열로 발현하면서 전신 근육통과 오한을 동반하고 특히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설사가 없음에도 고열과 함께 복통이 계속된다면 독감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으면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독감 유행은 2월 정점을 찍고 4월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최근수기자

아름다운 태안군 외국인도 감탄

공공외교단 운영 등 태안의 매력 해외에 적극 홍보

태안군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나서며 '다시 찾고 싶은' 태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한서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태안군 공공외교단' 단원 등 외국인 80여 명을 초청,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꽃지 일몰, 태안 빛축제장 등 태안의 대표적인 겨울철 관광지를 순회한 결과 아름다운 태안에 반했다는 감탄사가 나왔다.

이번 태안투어는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인 태안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한서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태안군 공공외교단'을 운영, 온라인과 SNS 등을 활용한 '태안 알리기'에 나선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팸투어를 적극 추진해 태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외교단 사업은 군이 올해 추진 중인 온라인(SNS) 홍보사업과 연계 실시되는 것으로, 군은 9월 1일 한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 베트남 · 몽골 유학생 50명을 공공외교단으로 위촉했으며, 단원들은 즉각적인 소통과 홍보가 가능한 SNS와 블로그 등에 태안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태안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특히, 개인이 아닌 동아리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콘텐츠 교류를 유도하는 등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홍보로 '관광 태안' 알리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해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태안군을 재방문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외 홍보에 나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태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청양군은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용품(생리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돼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이 대상이다.

희망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분증, 의료급여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신청자에게는 각 가정으로 택배발송하거나 신청한 날에 즉시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안됩니다

논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주차방해 행위 민관합동점검 전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5년 7월 29일 개정 · 시행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계도 및 홍보활동 등 민관합동검점을 전개한다.

내년 1월 13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활동은 각종 언론매체등을 통한 이용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올바른 장애인전용구역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돼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계도 및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공간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전개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서천군 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동절기를 맞이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겨울철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각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도로공사 ▲전기시설 ▲소방시설 ▲구조물 시공실태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등 사업현장 및 시설물 1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위험요소가 있는 안전시설물은 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했다.

이후에도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 및 도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도로제설, 교통 대책추진 등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겨울철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노숙인 및 저소득 주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 강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민간자원 연계지원 강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철저한 사전 안점점검 실시로 단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또한 "국가적 혼란상황이지만 공무원들 모두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천안 동남권 복지의 중심 남부종합복지관 기공식 열려

동남부권 주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 기대

천안시는 20일 선진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로써 시는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동 · 남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균형 있는 주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던 예산에서 15억원이 늘어난 384억원을 투입하여 1만2284㎡ 부지에 연면적 1만3060㎡ 규모로 추진해, 소외되었던 동 · 남부지역의 장애인, 노인,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립해 동남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공식은 동남구 삼룡동 332-1번지 일원에서 구본영 시장, 전종한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초청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 기념발파 등으로 진행됐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5층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 · 전기실, 구내식당,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하고 지상1 · 2층에는 주로 보호실, 활동실, 치료실 등의 장애인이용시설을 배치한다.

3 · 5층은 취업센터, 교육실을 비롯한 노인이용시설이 있으며 4층은 상담실, 직업훈련실 등의 여성이용시설이 들어선다. 이 외에 이들 모두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도 각 층에 안배되어 있다.

현재 시는 공용건축물 협의, 각종 예비인증, 심사 등 수많은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협조를 얻어 마지막 단계를 추진 중이며,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동일 대지 내에 추진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의 일부가 이번 사업의 일부 공종과 연관되어 있어 적시 준공을 위한 적절한 공정관리와 사업 간의 긴밀한 협조를 꾸준히 유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 동 · 남부 지역 주민의 숙원인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피부로 와 닿게 될 것"이라며, "건립 예정지가 동 · 남부권에서 봤을 때 위치가 가깝고 주변 교통환경이 복잡하지 않아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45번 · 47번 버스 노선 · 종점 변경

계룡시, 사전 홍보로 시민불편 최소화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시내버스의 운행노선과 버스 종점을 변경한다.

시는 시내버스 개통 이후 노선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지난 7월부터 인접한 대전시 및 경익버스와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계룡~대전을 운행하는 45번과 47번 노선의 경우 계룡시민의 유동인구가 많은 건양대병원과 관저동 일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존 종점을 서부터미널에서 건양대병원으로 변경된다.

특히, 승객수가 없어 빈차운행이 심각한 200번 노선은 폐지하고 45번 버스를 1대 증차하여 운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노선이 변경되는 45번 버스의 경우 도곡 2리에서 출발하여 파라디아아파트, 계룡시청(보건소), 계룡역을 경유토록 하여 모든 시내버스가 계룡시청을 지나도록 관내 구간을 조정했다.

45번과 47번 버스의 대전지역 운행구간은 진잠4거리를 거쳐 구봉고4거리, 느리울중4거리 등 관저동 일대를 경유토록 조정하여 건양대병원 입구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시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 노선을 변경 추진하며,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갈수록 심화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줄이면서 이용객수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및 친절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건설교통과(042-840-2532)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2017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포

지방세와 국세 등 세정 홍보와 성실 납세 유도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세정 홍보와 성실 납세 유도 등을 위해 '2017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하여 배포에 나섰다.

배부 대상은 지방세 표준시스템을 활용하여 올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2,70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했다. 탁상달력에는 납세정보와 주요 세목의 정의,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 기한과 테마별 지방세 안내, 기타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 계룡시 세정 정보를 탁상달력 앞면과 뒷면에 담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작됐다.

시 관계자는 "세정 홍보용 탁상달력은 2012년부터 매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납세자 이해와 활용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과 주관으로 운영되던 기존 'AI가축방역대책본부'를 'AI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서천군수를 본부장으로, 부군수가 차장, 안전총괄과장이 통제관, 농림과장이 담당관을 맡게 된다.

군은 재난상황관리반과 재난자원지원반, 의료 및 방역서비스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재난수습홍보반, 사회질서유지반, 유관기관반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취약지역 중심의 현장 방역활동 강화 및 예찰,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주요 철새서식지 예찰활동을 통해 AI 유입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금강하굿둑 주차장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소독하는 등 긴급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AI에 감염될 경우 대량 살처분으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유입차단과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송년행사

논산시보건소, 우수회원 표창과 화합의 시간 마련

논산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6일 보건소에서 '2016 정신건강증진센터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해동안 센터를 이용한 회원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모시고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재활에 성공한 우수회원 3명과 정신장애인의 자활을 꾸준히 지지해준 가족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정신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역사회적응훈련 등 2016년 활동 영상 상영, 소통과 화합의 치료 레크레이션 및 다양한 축하공연 등으로 송년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연안 보건위생과장은"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족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논산시민의 정신건강을 이끌고 재활과 회복에 힘써 희망찬 2017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이길구기자

유통업무협약 우수성과 업체 표창

부여군, 업무협약 체계 강화 · 우수성과 표창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9일 한해를 마감하며 농산물유통업무협약 우수성과 업체(조직)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굿뜨래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굿뜨래 제2창업 실현, 부자농업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유통업무협약 부분에서 큰 성과를 보인 업체에 감사패를 전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랜드리테일 정자성 본부장, 우듬지영농조합법인 김호연 대표, 굿뜨래경영사업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이랜드리테일, 우듬지영농조합법인 3자간 업무협약을 성실이 이행하여 매출 증가는 물론 굿뜨래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번 표창을 통해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업무협약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 51개 매장에서 4.6조원(영업이익 2,41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로 2013년 우듬지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28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60억원 등 4년간 171억원의 부여군 농산물을 매입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외식사업부 식자재 품목확대로 80억원 매출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동 정

창립총회

구본영 천안시장=21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천안시 통합체육회 창립총회에 참석.

지역경제혁신대상 시상식

황명선 논산시장=21일 오후 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 시상식에 참석.

경로당 준공식

최홍묵 계룡시장=21일, 오전 11시 30분 엄사3리에서 열리는 '경로당 준공식' 참석.

12월중 희망의대화

노박래 서천군수=21일 오후 2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6년 서천군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며 이어 3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도 12월중 희망의대화에 참석.

사비꿈나무 책나눔행사

이용우 부여군수=21일 오전11시 부여 키즈북카페에서 열리는 사비꿈나무 책나눔 행사에 참석.

백제고도문화재단 창립 10주년 행사성료

(재)백제고도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2도약을 선언했다.

백제고도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지난 15일 개식사를 시작으로 재단 10년 발자취 영상물 상영, 유공자표창, 격려사, 기념사, 폐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우 부여군수를 비롯 이순근 이사장, 여홍기 문화재사업소장, 이기주 충북대학교 교수, 박종진 서원대학교 교수, 발굴현장 관계자 등 내빈이 함께 했다.

이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었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10주년을 기념하여 백제고도문화재단 임직원들은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장애인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집안 청소 및 빨래, 정리정돈 등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도기)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계획된 가사지원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한 임직원 개인의 후원 봉사도 즉석에서 잇따라 훈훈함을 더 했다.

백제고도문화재단은 2006년 설립하여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발굴, 연구 및 보존관리로 계승 발전 해 나가는 기관이다.

부여=이정복기자

동 정

4분기 보령회 정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 = 21일 오전 11시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4분기 보령회 정례회의, 오후 2시 연말 군·경 위문, 오후 4시 30분 옥마산 올레길에서 열리는 보령시심벌마크 제막식, 저녁 7시 웨스토피아에서 열리는 보령시체육인의 밤 참석.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이완섭 서산시장= 21일 오전 9시 40분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미래엔서해에너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서산시테니스협회 성금 기탁식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참석, 오전 1시 40분 시장실에서 공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오전 2시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 오전 4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평가회에 참석.

전통시장 동짓날 축제

박동철 금산군수= 21일 오후 3시 금산시장서 열리는 전통시장 동짓날 축제에 참석.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감 보고회

조민행 보령교육장= 21일 오후1시30분부터 충남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감 보고회에 참석.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 3년 연속 '최우수' 축제 선정

서산 가로림만 대표 축제 자리매김

서산시 지곡면 중리포구 일원에서 매년 열리는 서산뻘낙지 먹물축제가 해양수산부의 '2016 이미지 개선사업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평가보고회에서 '서산뻘낙지 먹물축제' 가 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꼽혀 인센티브 1,000만원과 국비 포함, 총 1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유류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의 16개 축제에 대한 현장평가와 평가보고회를 실시했다.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는 낙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참여형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35%나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명실공히 서산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인기예능 프로그램인 KBS 2TV '1박2일' 을 통해 지곡면 중왕리가 소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선정에 한몫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축제 선정을 계기로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서산 가로림만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산시 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 해소· 치료율 향상·· 홍보 박차

서산시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율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지난해 소아 암환자 6명, 성인 암환자 90명 등 96명에 9,800여만원을, 올해 소아 암환자 9명, 성인 암환자 117명 등 126명에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를 위해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는 만큼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용익 서산시 보건소장은 "암은 현대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완치할 수 있으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산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직장가입자 89,000원,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신규 암환자가 해당된다.

이들이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폐암으로 진단 받게 되면 본인 일부 부담금에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전체암종에 본인 일부 부담금에 연간 120만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아 암환자에게는 백혈병이 최대 3,000만원, 나머지 암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 보건소(661-6506)로 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보령시 김태완 주무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위촉

보령시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김태완(공업 7급) 주무관이 오는 23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6년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위촉식에서 제9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 앞으로 공공기관·산업체·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숙련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을 교수로 선발해 중소기업,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훈련과정 설계, 현장 훈련지도, 기술 특강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7년 보령시 회계과에서 지방기계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김태완 주무관은 그동안 보령시 청사 내 각종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개별시스템 도입, 보일러 폐열 환수장치 및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창의적인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취득을 시작으로 국가 최상위 자격증인 에너지관리 기능장과 배관기능장을 연달아 취득했고, 지난 2015년에는 한국보일러 대상 운전부문에 선정돼 빼어난 실력을 입증했다.

김태완 주무관은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기술을 지역을 위해 쓰도록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 성주면 개화3리 · ㈜보창산업

도시-농촌 1사1촌 자매결연

보령시가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농어촌 마을에는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판로 개척 등 기업과 마을간 상생분위기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해 온 '1사1촌 자매결연' 이 올해 마지막으로 성주면 개화3리와 ㈜보창산업의 결실로 맺어졌다.

시는 20일 오후 개화3리 마을회관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송병태 성주면 개화3리 이장, 권혁영 ㈜보창산업 대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 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창산업은 임야 1만5000여㎡를 마을에 기부하고, 마을에서는 기부 받은 토지에서 취나물생산단지를 조성, 마을 공동소득창출사업을 추진하게 돼 1사 1촌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농간 균형발전과 기업과 마을 간의 우호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과거 대형 차량의 수시 이동에 따른 석분으로 주민과 회사간 갈등도 있었지만, 양측의 원활한 이해와 협의로 갈등을 봉합하고 자매결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더욱 깊은 인연이 된 것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11월에는 올해 자매결연한 ㈜오쿠와 청소면 진죽1리가 제11회 1사1촌 공모전에서 충청남도지사 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과 마을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의지가 커다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자매결연 한 성주면 개화3리와 보창산업도 활발한 교류로 농촌지역의 더 큰 활기를 불어 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올 한 해 기업과 마을간 자매결연으로 기업에서는 지역 농산품 구입, 농번기 일손 돕기, 기업 현장 견학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고, 마을에서는 정성스럽게 생산한 친환경 농·특산품을 기업체에 저렴하게 판매 하며 기업홍보 등을 펼쳐왔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전국 으뜸

창조 인재육성 우수사례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가 전국 114개 창조지역사업 중 5대 대표 우수사례(창조인재육성형)로 선정됐다. 2016년 지역발전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다.

사업성과 및 추진체계, 주민참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는 귀농귀촌의 대안제시, 목조건축의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및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한 금산만을 위한 창조지역사업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간 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됐다.

올해로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여러 가지 뜻 깊은 성과를 얻었다.

교육생의 일부를 타지역민으로 구성하고 관내 귀농귀촌대학 및 센터와 연계하여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 및 자가주택 신축 등에 도움을 줬다.

한국목조건축학교와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연계하여 700시간 교육 이수자에게 주는 '목구조시공기술자 자격증(산림청장)' 을 5명이 취득했다. 이들은 관내 목조건축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2016년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하반기 수료식이 지난 16일 오후 5시 진산면 읍내리 '주민체험장' 에서 위탁기관인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사, 교육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지난 9월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5개 프로그램을 운영, 176명이 참여하여 경량목조건축 1동과 트리하우스 2동이 완성됐다.

일반인 대상 목조체험교육에는 관내 주민과 귀농귀촌 관심자들이, 청소년 대상 학교내 아지트 만들기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은 금산동중과 별무리학교 자유학기제 대상학생과 관내 여러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남일면 지역아동센터 집수리 사업, 하반기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과 함께 신나는 목공체험 활동을 가졌다.

금산=전정만기자

금산군 야간민원실 운영

내년 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금산군이 2017년 1월 1일부터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등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야간민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창구담당 공무원 5명이 연장근무 하도록 배치해 인감증명서, 여권 발급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한 증명서발급은 물론 지적, 차량, 주민등록 등·초본 등 19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민원실 관계자는 "직장일과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이 일과 후 시간을 활용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야간민원실을 운영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민원편익제도를 발굴 시행해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밝혔다.

금산=전정만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아임 쏘리 강남구 (SBS 오전8시30분)

모아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신회장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같은 시각 고열이 나는 재민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지갑을 주운 도훈이 신회장에게 돌려주러 갔다가 태진에게 오해만 산다. 쓰러진 신회장은 포기했던 아들 찾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태진에게 부탁한다.

▲ 언제나 봄날 (MBC오전7시50분)

한길(최상훈)은 덕상(이정길)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지만, 뒤에서 문식(김형종)과 함께 덕상의 약점을 노리기로 결심한다. 현준(박정욱)은 이런 두 사람의 계획을 알아차리게 되고, 윤호(권현상)는 갑작스럽게 주변의 관심을 받게 된 인정(강별)을 걱정하며 다시 한번 인정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는데...

▲ 저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

인경(윤아정)은 의식을 찾은 수지(유지연)가 기억상실에 걸렸단 사실에 절망하고, 민우(노영학)는 사건을 덮을 수 있단 생각에 쾌재를 부른다. 한편, 인경은 수지의 수첩에서 태준(이재용)이 친모 연희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는데...

케이블 명화

▲ 인타임 (OCN 오후 7시50분)

근미래,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팔뚝에 새겨진 '카운트 바디 시계'에 1년의 유예 시간을 제공받는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13자리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그 즉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때문에 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시간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그도 아니면 훔쳐야만 한다.

돈으로 거래되는 인간의 수명! 윌 살라스(저스틴 팀버레이크)는 매일 아침 자신의 남은 시간을 보며 충분한 양의 시간을 벌지 못하면, 더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눈을 뜬다. 그러던 어느 날,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헤밀턴이란 남자를 위험에서 구해준 윌은 그에게서 소수의 영생을 위해 다수가 죽어야 하는 현 시스템의 비밀을 듣게 되지만, 그 남자가 100년의 시간을 물려주고 시체로 발견되면서 졸지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된다.

▲ 용의자 X (채널CGV 오후 10시00분)

자신이 남몰래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그녀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감추려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하며 벌어지는 치밀한 미스터리를 그린 <용의자X>.

탄탄한 스토리와 치밀한 구성이 주는 긴장감! 천재수학자의 완벽한 알리바이!

천재로 알려졌었지만 현재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석고(류승범)는 어느 날 옆집에 이사 온 화선(이요원)이 우발적으로 전남편을 죽인 것을 알게 된다.

석고는 남몰래 지켜봤던 그녀를 위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그녀는 형사들의 추적을 받지만, 놀랍게도 화선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하며 용의선상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하지만 이 사건의 담당형사인 민범(조진웅)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화선이 범인이라 확신하고 그녀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천재수학자 석고는 어떤 알리바이를 설계한 것일까?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증명하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5:10 콜렉터
6:30 인셉션
9:0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6
13:00 존 카터:바숨 전쟁의 서막
15:3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7:40 이스케이프(2015)
19:50 인타임
22:00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 채널 CGV
4:00 마돈나
6:20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8:40 두근두근 내인생
11:00 웨딩 플라이트
13:00 안녕, 헤이즐
15:30 퍼시잭슨과 번개도둑
17:50 걸리버여행기
19:30 미션 임파서블 3
22:00 용의자X

◈ Mnet
6:20 너의 목소리가 보여 2
7:50 양남자쇼
8:50 프로듀스101
10:50 2016 MAMA 비하인드
11:50 M COUNT DOWN
13:3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20 골든 탬버린
15:50 갓세븐의 하드캐리
17:10 Daily Music Talk (SMS)
18:00 양남자쇼
19:00 너의 목소리가 보여2
20:30 Live on M(SMS)
21:40 2016 MAMA 베스트 퍼포먼스
23:50 SIXTEEN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다시보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12:00 여자장사 씨름대회
14:00 2016 김현수 최고의 경기 TOP5
15:00 MBC SPORTS+ 특선 우먼스 파워
17:00 <복싱스페셜> 페더급 빅매치
19:00 2016-2017 KCC 프로농구

◈ SBS 스포츠
11:38 16-17 EPL 다이제스트
12:08 2016 LG U+컵 당구 3쿠션 마스터스
14:22 16-17 EPL 다이제스트
14:54 16-17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17:04 16-17 V리그 여자부
19:06 16-17 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 온스타일
7:25 매력티비
8:20 응급남녀
9:25 응급남녀
10:30 응급남녀
11:35 응급남녀
12:45 응급남녀
13:50 응급남녀
15:00 응급남녀
16:10 응급남녀
17:20 응급남녀
18:30 응급남녀
19:45 립스틱 프린스
21:00 겟잇뷰티2016
22:15 고양이띠 요리사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톡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0:15 YTN 24
21:00 뉴스만만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열려라 성공취업
21:00 장외주식 4989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세계 테마 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1부-2부
12:30 아시아 헌터
13:30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2)
14:00 <천의 얼굴을 간직한 대지, 캐나다> 2부 - 비밀을 간직한 서부
15:00 나미브 사막의 코끼리
16:00 TV 동물농장
18:30 사막의 기적, 칼라하리
19:30 <세계 테마 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2부-3부

음악 · 애니

◈ MBC 뮤직
7:30 Good Morning MBC MUSIC
8:30 라붐 프로젝트
9:00 Weekly M CAST
10:00 나 혼자 산다
11:3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2:30 형돈이와 대준이의 히트제조기
13:30 MBC MUSIC HIT SONGS
14:00 무한도전
15:30 복면가왕

◈ 애니맥스
6:00 고스트 닌자고
7:00 헬로카봇4
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9:00 뽀롱뽀롱 뽀로로6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2
11:00 좀비덤
12: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스페셜
13:00 다이노 코어
14:00 파워배틀 와치카 시즌2
15:00 넥소 나이츠 시즌2
16:00 캡슐보이
17:00 포켓몬스터 XY&Z part 2

◈ JEI 재능방송
6:00 로보카 폴리 시즌3
7:00 고고 다이노 시즌2
8: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9:00 다이노코어
10:00 역사를 바꾼 별난Zoo
11:00 세서미 스트리트- 슈퍼 헬시 몬스터즈
12:00 쿵쿵찍짝 라라
13:00 프리파라
14: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5:00 캡슐보이
16:00 퍼피구조대 시즌2
17:00 애슬론 또봇2
18:00 헬로 카봇4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6:00 MBC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영상소식 6:25 대한니우스 6:30 은혜로운 말씀	6:10 세계의 눈 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7:50 인간극장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50 언제나 봄날	7		7: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25 아침마당	8:00 KBS아침뉴스	8:30 생방송 오늘아침	8	8:30 아임쏘리 강남구	8:00 뉴스와이드 8:50 대한니우스	8:00 딩동댕 유치원 8:30 시계마을 티키톡!
9:30 KBS 뉴스	9:00 TV소설 저하늘에 태양이 9:40 여유만만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좋은 날	9	9:10 좋은 아침	9:00 시크릿 캐슬 9:50 CMB 시민기자뉴스	8:45 방귀대장 뿡뿡이 9:00 출동! 슈퍼윙스 9:40 라이브토크쇼-부모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0	10:10 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0:00 메디컬 인 10:30 다시보는 문화영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00 KBS 스페셜 11:55 감성애니 하루	11:00 오 마이금비	11:00 불어라 미풍아	11	11: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11: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1:00 영상포엠 한국100경 11:30 빅데이터세상을 말한다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12:00 KBS 뉴스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역도요정 김복주	12		12:00 굿뉴스 12:45 대한니우스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00 신나는주말 체육학교 1:05 KBS 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1:00 비타민	1:30 드림주니어 스페셜	1	12:00 SBS 12 뉴스 12:5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00 CMB집중토론 '얼어붙은 나눔의 손길, 당신의 이웃은?'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4:00 잭과 핑
2: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2:00 KBS 뉴스타임 2:10 세상의 모든 다큐	2: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2	2:00 중계방송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14:30 미 앤 마이 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시간여행
4:00 4시 뉴스 집중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3:55 프리파라 2	3	3:30 3시, 뉴스브리핑	2:30 다이어트 미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30 방귀대장 뿡뿡이
5:00 KBS뉴스 5 5:30 동물의 세계	4:00 여유만만	4:25 황금주머니	4	4:30 고향이 보인다	3:00 굿뉴스 3:50 대한니우스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한글이 아호2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 자칼럼 우리 사는세상	5:00 꼬마어사 궁도령 5:30 강력추천 배틀트립	5:00 MBC 이브닝 뉴스	5	5:00 애슬론 또봇 5:30 SBS 뉴스 퍼레이드	4:00 다큐희망 4:3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4:50 CMB 스포츠 프로배구 KGC인삼공사 vs 현대건설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뽀롱뽀롱 뽀로로
7:00 KBS뉴스 7:35 사람과 사람들	6:00 KBS 뉴스타임 6:20 2TV생생정보	6:10 생방송 오늘저녁	6	6:05 생방송투데이		18:00 톡! 톡! 보니 하니 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8:25 빛나라 은수	7:50 다시, 첫사랑	7:15 행복을 주는 사람 7:55 MBC뉴스데스크	7	7:20 사랑은 방울방울	6:50 CMB 스포츠 프로배구 삼성화재 vs 한국전력	18:20 톡! 톡! 보니 하니 2 18:25 아옹멍멍 귀여워
9:00 KBS 뉴스 9	8:30 글로벌 24 8:55 트릭 앤 트루	8:55 황금주머니	8	8:00 SBS 8뉴스 8:55 영재발굴단	9:00 뉴스와이드 9: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8:40 톡! 톡! 보니 하니 3 18:45 역사가 술술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5 숨터 미래유산 100년후 보물찾기	10:00 오 마이금비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역도요정 김복주	9		10:00 톡톡 남도쿡방 10:30 다큐희망	18:55 톡! 톡! 보니 하니 4 19:00 레전드히어로-삼국지
11:00 KBS 뉴스라인 11:40 특집 다큐 아이티의 한국 엄마	11:10 추적 60분	11:10 라디오 스타	10	10:00 푸른바다의 전설	11:00 영상포엠 한국100경 11:30 빅데이터 세상을 말한다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11	11: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전국 최고의 야외스케이트장 대전엑스포시민광장 23일 개장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풍성한 가족중심 여가공간

전국 최고의 야외스케이트장과 민속썰매장이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 개장된다.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은 오는 23일 개장해 내년 2월 10일까지 50일간 운영되고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시간 연장 운영된다. 개장 첫 날인 23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5시 개장식에서는 스케이트 쇼와 퓨전 타악그룹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스케이트장은 1,800㎡로 400명이 민속썰매장은 900㎡로 100명이 동시에 탈 수 있고, 스케이트 강습, 군밤체험, 빙어잡기체험, 내가 DJ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상설로 준비되어 있다.

또한 주말, 크리스마스,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도 마련 됐으며 이용요금은 1회 1시간 1,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부족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스포츠도 즐기고 행복한 추억도 만들기를 바란다"며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가족중심의 여가공간으로 주변의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한밭수목원과 함께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사임당, 빛의 일기' 웰메이드 30초 티저 영상 공개.

오는 2017년 첫 방송‥비밀스런 분위기 '궁금증 증폭'

'사임당'이 티저 영상 30초만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후속으로 오는 2017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이하 '사임당') 측은 지난 19일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대체불가 배우들의 압도적 존재감과 상상초월 이야기로 30초를 풍성하게 채운 '사임당'은 기대작다운 웰메이드 티저 영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것.

미인도에서 지금 막 튀어나온 듯 우아하고 단아한 자태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과시하는 배우 이영애는 짧은 영상에서도 섬세하면서도 입체적인 연기로 그녀가 그려낼 사임당과 시간강사 서지윤의 1인 2역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불꽃같이 형형한 눈빛으로 숨 막히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배우 송승헌은 사임당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치는 '조선판 개츠비' 이겸을 연기한다. 길들일 수 없는 자유 그 자체인 송승헌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은 연기 변신을 기대하게 한다.

이탈리아 전경을 시작으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오가며 수놓아지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영상은 과연 '사임당'이 풀어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사임당'은 한국미술사를 전공한 시간강사 서지윤(이영애 분)이 이태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이영애 분) 일기에 얽힌 비밀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풀어내는 퓨전사극이다. 일기 속에 숨겨진 천재화가 사임당의 위대한 삶과 '조선판 개츠비' 이겸(송승헌 분)의 불꽃같은 이야기가 작가의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그려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

한편, 예상을 깨고 정통사극이 아닌 퓨전사극으로 제작돼 궁금증과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는 '사임당'은 내년 1월 25일에 첫 방송된다.

감성초 '2016 감성 알뜰 나눔장터' 성료 지난16일 학부모회와 연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2016 감성 알뜰 나눔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나눔장터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재생을 통한 현명한 소비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엄정화, 새 앨범 '구운몽' 더블 타이틀곡 컴백 확정

'가요계의 퀸' 가수 엄정화가 실력파 뮤지션들과 손 잡고 다양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앨범으로 돌아온다.

오는 27일 0시 새 정규 앨범 'The Cloud Dream of the Nine(구운몽)'을 공개하는 엄정화는 20일 더블 타이틀곡 컴백을 확정하며, 3차 콘셉트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는 작곡가 윤상이 이끄는 프로듀싱팀 '원피스'의 곡으로, 윤상표 감성이 담긴 댄스곡이다. 다른 한 곡은 그룹 엑소(EXO)의 '으르렁'과 그룹 샤이니의 'Dream Girl(드림걸)' 등을 작곡하고, 가수 딘의 프로듀서로도 활동해온 작곡가 신혁이 작업에 참여해 트렌디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곡을 완성했다.

특히 가수 이효리, 샤이니 멤버 종현이 피처링에 참여하는 등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과 엄정화의 시너지를 통해 다채로운 음악이 담긴 앨범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20일 함께 공개된 3차 콘셉트 이미지 세 장 역시 단번에 눈길을 끈다.

한편, 엄정화는 오는 27일 0시 앨범 발매에 앞선 26일 SBS '2016 SAF 가요대전'과 네이버 V에서 생중계되는 '카운트다운 라이브: Umazing'를 통해 신곡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충남대, 대학 주요업무보고 순회간담회 개최 충남대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사범대학 2201호실에서 오덕성 총장과 김기수 사범대학장을 비롯한 60여명의 교수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주요 업무보고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보건의료생협 중앙요양병원, 대덕구 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기탁 대덕구법1동 소재 대전보건의료생협 중앙요양병원(이사장 한충복)에서는 20일 대덕구 법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이원, 김원규)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 '米男米女' 쌀 지원 행사 개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상준)는 20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米男米女(미남미녀) 쌀 지원행사를 개최했다.

온양삼일교회, 희망2017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19일 아산시(시장 복기왕)에 「희망2017 나눔캠페인」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1,000만원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아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게 된다.

백운집 대전충남병무청장, 직원 간담회 개최 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20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직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진시 이웃돕기 손길 이어져 충남 당진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신성대학교 이병하 이사장이 당진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한데 이어 현대오일뱅크도 2500만 원 상당의 쌀 10㎏ 2,000포를 전달했다.

대전대 임용철 총장, 재학생들에게 간식 나눠주는 행사 가져

시험 준비에 지친 학생들 격려 나서

대전대학교가 시험에 지친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섰다.

20일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에 따르면 임용철 총장을 비롯하여 선길균 교학부총장과 대학관계자 및 총학생회 임원 10여 명이 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기말고사와 취업준비에 지친 재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준비된 간식 300여 개가 행사 시작 30여 분만에 동이 나는 등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했다.

임 총장은 재학생 한명 한명과 악수와 덕담을 통해 준비된 간식을 전달했으며 좋은 성적을 통해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응용화학과 주승훈(13학번,23,남) 학생은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나눠준 간식덕분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며 "열심히 공부하여 한 학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사회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 지친 마음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값진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아산시청 생명나눔 헌혈봉사 실시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은 겨울철 방학과 추위로 인해 헌혈인구의 감소로 혈액수급에 어려운 시기를 맞아 지난 15일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60여명이 참여 40여명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봉사를 실시했다.

2011년부터 아산시청 헌혈봉사를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공무원노조 김진민부위원장은 이번 헌혈이 30번째로 적십자헌혈유공장 은장 포장증을 수여 받았으며 "연말이라 각자의 업무로 바쁘고, AI근무등으로 몸에 피로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헌혈봉사에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해준 아산시청 동료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병상에서 수혈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서 빨리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송하암대리는 "헌혈은 사랑나눔의 실천뿐 아니라 헌혈을 통해 ABO식 및 RH식 혈액형, B형 및 C형간염, 간기능, 매독의 기본검사등의 결과를 본인에게 개별 통보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아산시청은 겨울과 여름철등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뿐 아니라 특히 헌혈일정의 공백시에도 헌혈봉사를 실천해주기에 매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유성구 원신흥 · 온천1 · 2동 – 유성지구대

복지허브화 위한 업무협약식 가져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동장 백준흠은 20일 원신흥동 · 온천1동 · 온천2동 주민센터와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가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공공기관은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복지서비스를 즉각 지원하는 데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김용숙 유성지구대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번 협약을 주관한 백준흠 원신흥동장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노희준 천안시 의원, 올해 들어 10번째

천안제일고 총동문회로 공로패 받아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은 19일 동문간 친목도모와 동문회의 발전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천안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맹성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노 의원은 평소 지역민을 위해 솔선 수범하며 성실과 열정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의 참된 시의원의 표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천안제일고등학교 총동문에서는 공로패를 통해 '우리지역의 시의원으로, 본교 총동문회의 감사로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간 친목도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공로패를 수상한 노 의원은 "85년의 긴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천안제일고등학교는 그 동안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며 "천안의 시의원으로서 작은 노력이라도 도움이 되어 동문간의 끈끈한 결속력 다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시 예산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천안제일고등학교 주최로 열린 '2016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화전시회'에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회에서는 국화 담당교사와 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준비한 대륜작 4점, 현애 9점, 입국 130점, 분재국 100점, 일간국 350점, 화단국 600점, 조형물 등 모두 1500여점을 선보였었다.

천안=김정환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충남남부도제지원센터 제5회 운영위원회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이배섭)는 20일 대전에 위치한 레전드호텔에서 2016년도 충남남부도제지원센터 제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바이오캠퍼스는 지난 2015년에 충남남부도제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3개 중소기업의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였고, 100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외훈련(OFF-JT)과 현장훈련(기업OJT 및 센터OJT)을 실시하고 있는 화공분야 도제학교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대전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과장과 도제학교 담당교사,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고 있는 참여기업 부대표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추진현황 및 추후운영계획 보고, 참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도제학교와 도제지원센터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충남남부도제지원센터,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운영으로 충남 남부지역 일학습병행제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신흥초 민경랑 교장 49호 대전아너 가입식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대전 최초 교육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대전신흥초등학교 민경랑 교장(오른쪽).

민경랑 교장은 20일 오후 3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 회의실에서 49호 대전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민 교장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지금까지 늘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따뜻한 말과 도움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그 와중에 더 큰 나눔의 꿈을 꾸게 됐고, 그것이 바로 '아너소사이어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가입동기를 전했다. 또한 "이번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혔다.

송병배기자

부여교육지원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생 원탁토론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은 20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45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및 참학력 신장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토론 의제로서는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인권 존중, 참학력 신장 등 네 가지 영역이 제시되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8개 모둠들은 의제 중 한 가지를 자체 선정한 후 각자의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훈 교육장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은 도교육청의 비전이며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부여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 사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강성기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이동렬(李東烈)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기 고

경찰 또는 검찰 조사시 유의할 점

이 종 현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Q)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서 아니면 자신이 피해를 당해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가 사건 의 목격자이거나 실체 파악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이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한 경우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외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목격자 또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인물인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경찰, 검찰을 거쳐서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참고인은 '증인'으로 불립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언제 어디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관의 소속,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인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하도 '보이싱피싱'이 횡행하다 보니까 수사관의 소속,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메모하여 두었다가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이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지정하는 일시에 만약 급한 개인적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해를 얻어 출석 일자나 시각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란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수사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는 우선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권의식의 고양으로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은 수사의 객체에 불과하고, 수사를 주재하는 것은 수사관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공간도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장소이고, 조사 시 앉는 자리 배치도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사관은 컴퓨터모니터를 앞에 두고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하지만, 조사를 받는 사람은 파티션으로 구분된 맞은 편 간이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로 시야가 거의 가려진 상태에서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질문에 답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을 할 때에는 그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끔 질문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하거나 질문과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게 되고, 수사관은 상대방이 뭔가 숨기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본인이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일단은 질문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부터 우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쓸데없는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말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조절을 못하고 흥분하여 진술하다 보면 설령 그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 불이익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나면 수사관이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피의자면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이면 진술조서)를 보여줍니다. 이 때에도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관에게 그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참고로 담당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담당 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기 고

매서운 '기부 한파' 녹일 당신의 온정이 필요합니다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는 2015년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0%)은 기부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왜 기부를 하는가에 대해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나눠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53.8%, 복수응답)'이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기부가 주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크기 때문(52.7%)',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40.4%)'이란 답이 뒤를 잇는다.

최근 보기 드문 경기불황, 청탁금지법, 시국상황 등으로 인한 '기부한파'를 겪고 있다.

모금가들의 심리 상태를 엿보기 위해 한국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곳에서 진행했던 모금가 교육 때 기부자가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물어본 데이터를 보니, 200명의 응답자 중 70%가 청탁금지법과 최근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금년도 모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청탁금지법 이전엔 기부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 모금가는 38% 정도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1위 이었고, 비기부자는 47%가 "경기 불황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자료가 이미 있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실행 이후엔 모금가는 57%가 "청탁금지법 때문에"라고 했고, 비기부자는 45%가 "청탁금지법"이라고 이유를 댔다.

최근 시국상황 이후에는 모금가의 70%가 "국정혼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비기부자는 50%만 "국정혼란"을 첫째 이유로 들었다.

최대 20%의 체감온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모금가와 기부자간 기부 체감온도 차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요청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모금이 안 되어도 충분한 이유가 되어 모금실적 부진을 외부 환경 탓으로 정당화하려는 여지를 주게 되어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연말이 되면 모금기관들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캠페인이 숫자 상승가하므로 기부금이 늘기 마련이다.

모금가와 기부자간에는 기부동기에 대한 견해 차이(보통 10%는 늘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모금담당자들이 사실 보다 필요 이상의 과민반응으로 패닉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미디어나 모금가들은 기부홍보에 대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기부금이 잘 들어 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 '내가 안 해도 남들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반대로 기부금이 안 들어 온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하면 '남들이 안 하니 나도 안 해도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자선의 면죄부'를 주게 되어 원치 않은 딜레마에 빠진다.

일반인은 불우 이웃을 보고 기부를 하는 것과 불의를 보고 거리에 나서는 행위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전체 기부총량의 불변 법칙에 의해 한해 동안의 총량은 거의 비슷하게 집계가 된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의 경우엔 스캔들이나 사태가 있으면 일년이나 일년 반 뒤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바로 영향을 미치기에 계획 없이 감정에 의해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복지수와 기부문화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 사이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인과법칙이 아닌, 확률을 중시하는 양자물리학에 비유한다.

일반적으로 봉사하며 사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고 한다. 심지어 그런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다. 행복해서 기부하는 것인지 기부가 행복을 불러오는 것인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기부를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 그리고 모금자 모두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행복감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결과는 아직 2016년이 끝나지 않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고 '막판 뒤집기'를 기대해 본다.

<BekayAhn(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장>

사 설

'청년들의 비명' 이를 어쩌나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10만명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2000명 감소했다.

조선업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7월, 4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특히 10월(-11만 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의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9월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전체 취업자는 2659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날씨가 나빠 농림어업 감소폭이 컸던 데 대한 기저효과에 최근 경기 호조를 보인 건설업 관련 취업자가 11만 1000명 늘어난 영향 등이 더해진 결과다.

연령별로 60세 이상(31만 6000명), 50대(11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었고 40대(-4만 5000명), 30대(-2만 6000명), 20대(-1만 6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3.1%였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8.2%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제조업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 채용 위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내년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 물론 세계 경기의 침체도 영향이 있겠으나 불확실한 국내 정치고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청년들의 실업률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전 강화돼야

내년 1월 28일 이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이하 승강기)는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니 지극히 바람직스런 조치로 받아들인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 출입문 틈새 끼임 사고 방지수단 설치 ▲ 15년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강화 등을 규정했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 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갇힘 없이 이용자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치를 갖추면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구조할 때까지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갇힘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2013년 1만3천623건, 2014년 1만5천100건, 지난해 1만5천71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또 승강기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막고자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를 현재 10㎜에서 5㎜로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틈새를 줄이기 불가능한 때에는 고무 등 부드러운 재질로 보완하거나,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설치 직후 받는 최초 검사인 '완성검사'에 준해 들여다본다. 정밀 검사장비로 부품의 노후 상태를 진단하고, 교체 시기를 예측도록 했다.

첫 정밀안전검사 후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승강장 문이 탈 추락 사고나 개문 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했다. 더이상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없어야겠다.

서혜부 탈장이란?

건강 칼럼

김 재 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외과 과장

□서혜부 탈장이란?

복부의 내장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빠져나온 것을 말하며, 그 중 복부와 허벅지 사이의 사타구니 부위에 발생한 탈장을 서혜부 탈장이라 한다. 2014년 건강보험주요수술 통계에 따르면 약 3만 2천건으로 다빈도 수술 10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며,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왼쪽 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원인

서혜부 탈장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막혔어야 하는 서혜관(복강에서 사타구니를 거쳐 음낭으로 연결되는 길)이 열려있어 생기는 간접형과, 복벽 조직이 어떤 원인에 의해 약해지거나 느슨해질 경우 생기는 직접형이 있다.

□증상

서혜부 탈장이 발생한 환자는 한쪽 사타구니 부위가 볼룩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탈장이 음낭까지 내려온 경우에는 한쪽 음낭이 커 보일 수 있다. 이것을 손으로 만져보면 튀어나온 소장이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데 배에 힘을 줄 때 더 뚜렷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탈장은 배에 힘을 줄 때 튀어 나왔다가 힘을 빼거나 누워 있으면 저절로 원상복귀 되는 상태가 반복되며 손으로 만졌을 때도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물지 않게 탈장이 복벽 근육에 끼어버리면서 저절로 복귀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嵌頓(감돈)탈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심할 경우 끼어있는 소장의 혈류가 차단되면서 장이 괴사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치료방법

탈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이 빠져나오는 입구가 넓어지면서 탈장이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 주어야 한다. 수술은 사타구니 부위에 약 5~10㎝ 정도의 절개를 해 탈장이 발생한 입구를 실로 묶어서 막아준 후 추가로 약해진 복벽을 보강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복강경을 이용해 작은 절개로 통증을 줄여주는 수술도 하고 있다.

□수술 후 주의사항

탈장 수술을 받은 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변비 등 복부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의 소사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편집국장	한 대 수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태안의 랜드마크 아파트 '태안남문 미소지움' 12월 분양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 혁신 4베이 설계 · 선호도 높은 중소형 구성… 지하 1층~지상 20층 · 전용면적 59~84㎡ 총 498가구

신규 분양 아파트의 대출이 규제를 받는 데다 내년부터는 집단대출의 잔금까지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발표되면서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에 대한 희소가치와 함께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파트가 충남 태안에도 등장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하고 SG신성건설이 시공하는 '태안 남문 미소지움'이 지난 16일(금)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94-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9~84㎡ 총 498세대 규모다.

'태안 남문 미소지움' 견본주택 개관 당일부터 방문객이 꾸준히 몰리며 성황리에 개관 중이다.

견본주택 내부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품 추첨행사도 진행됐다.

단지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됐고 혁신 4BAY설계(일부타입에 한함)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입주자들이 보다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84㎡경우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해 대형 워크인 팬트리 및 수납특화 공간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태안 남문 미소지움'은 교통과 생활환경이 좋다. 단지에서 인근의 32번, 77번국도를 통해 서산, 안면도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인근 종합터미널과 다양한 시내버스 노선이 있다.

또한 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가깝고 병원, 우체국, 은행 등 태안읍 중심가의 각종 편의 시설이 있다.

이 아파트는 인근으로 태안초, 태안중, 태안여중, 태안고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백화산 개발계획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등 자동차산업관련 입주가 예정돼 있는 태안기업도시의 개발로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분양관계자는 "'태안 남문 미소지움'은 시공능력으로 인정받는 SG신성건설이 책임시공하는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태안의 주거기준을 높이는 고품격 아파트로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남문 미소지움'은 입주민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 전용 셔틀버스를 기증할 계획이다. 셔틀버스를 통해 아파트단지에서 태안읍의 학교, 마트, 은행 등 주요 편의시설을 경유하면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선 및 운영계획은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협의결정된다.

'태안 남문 미소지움'의 모델하우스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86-3번지에 위치해 있다.

문의 : 1566-8869

태안=김정한기자